21일 Market Index
코스피 5735.66 (+182.92)
코스닥 792.76 (+10.79)
금리(국고채 3년) 3.822 (-0.018)
환율(원·달러) 1324.05 (-4.0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17% 금리, 리볼빙 잔액 7조 돌파… '부익부빈익빈' 격화

카드사 9곳, 리볼빙 잔액 527억 증가
고물가에 취약계층 상환여력 악화
가계대출 관리로 카드론은 감소세
대출 성격 아닌 리볼빙, 관리 어려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리볼빙(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 잔액이 지난달 7조원을 돌파했다.

리볼빙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경기 양극화로 카드 대금 결제를 미루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 잔액은 감소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9월 말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527억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당장의 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지만, 카드론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고객이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약정이 계속 유지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리볼빙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7조613억원을 기록한 이후 6조원대에 머물렀던 리볼빙 잔액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 다시 7조원대로 올라섰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리볼빙 잔액이 전월 대비 250억8300만원 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우리카드(+105억1100만원), 신한카드(+89억4000만원), 삼성카드(+81억3400만원), 롯데카드(+35억6700만원), 비씨카드(+95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KB국민카드(-23억6700만원), NH농협카드(-6억6900만원), 하나카드(-5억9000만원)는 감소세를 보였다.

리볼빙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 여력 약화가 꼽힌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득만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당장의 연체를 피하기 위해 리볼빙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금리다. 지난달 NH농협카드를 제외한 국내 카드사 8곳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33%다. 카드론 평균 금리(13.55%)와 비교하면 3.78%포인트(p) 높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보다 갚는 것을 미루는데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저신용자 부담은 더 크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리볼빙 금리는 18.99%로, 법정 최고 금리(연 20%)에 육박한다.

한편, 카드론 잔액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3404억원이다. 전달 대비 3448억원 감소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172억원으로, 같은 기간 2867억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가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경기 양극화가 심하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보니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 상품의 경우 연체 채권이나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분기 말 채권을 상각하면서 잔액을 조절하는데, 리볼빙은 대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잔액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2026 제약·바이오포럼 '노화를 되돌리다: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의 주제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역노화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 연구진이 확보해야 할 핵심 경쟁력을 통해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규춘 기자

이달 누적수출 616억 弗 '역대최대 실적'

관세청, 20일까지 수출 105% 증가
반도체 수출 275억 弗, 222.5%↑
국가별로 中 154%, 美 155% 늘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 10월 1~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2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616억 1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4% 늘었다.

이는 10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10월의 종전 최대기록(343억 달러)을 갈아 치웠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7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28억6000만 달러)보다 65.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가 이번에도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75억 1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5% 급증했다. 10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보다 16.2%포인트 상승한 44.7%에 달했다.

수출 품목 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4억 3200만 달러로 424.0%나 급증했다. 이 밖에 석유제품(68.3%), 승용차(40.9%), 자동차부품(40.4%), 선박(6.9%)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뉴시스

국가별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중국 시장 수출은 166억8600만 달러로 154.4% 증가했다. 미국시장 수출도 107억7800만 달러로 154.9% 늘었다.

베트남 수출은 50억1100만달러로 74.6%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44억6300만달러로 78.2% 늘었다. 대만(36.7%), 일본(54.9%), 인도(89.5%)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확대됐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71억17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8%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75억7300만달러로 78.4% 늘었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18억4700만 달러로 93.4%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원유 수입은 74억 4800만달러로 42.9%, 가스 수입은 28억2000만달러로 112.4%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144억96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상승 베팅… 서학개미, 밤 잠 설친다

반도체 수익률 3배 추종 ETF '속슬' 36억 弗 순매수 1위… 수익률 -34%
韓 증시 3배 추종 '코루' 순매수 2위

30대 직장인 김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뉴스에 이달 초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을 사면서다. 이 상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한다. 김씨는 "반도체 주가 올라서 큰돈을 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라며 "시장보다 앞서 판단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올가을 잠 못 드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과감히 '반도체 상승'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다. 일부 과감한 개미는 2배 베팅도 부족해 수익률 3배 상품으로 몰려들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46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9월 전체 순매수액인 10억128만달러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2개 종목은 지수 움직임에 따라 3배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서학 개미들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은 '속슬'(SOXL)이다. 반도체 지수 하루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순매수 금액이 36억2313만달러에 달한다. 순매수 2위인 '코루'(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LL)도 2억8874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코루'는 국내 증시를 3배로 추종한다.

이 외에도 서학 개미들은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에 1억640만달러,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에 8949만달러 순매수했다.

베팅은 과감했지만, 수익률은 시원치 않았다. '속슬'은 이달 들어 34.02% 폭락했다. '코루'는 43.36% 하락했다. 'QLD'와 'TQQQ' 수익률도 각각 -6.39%, -9.76%를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선관위 직원 조사 후 사망에…특검, 중수청장 예방 연기

▲ 與, 정무위서 못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비판…野, 秋 '소방 빨대' 구설 공세



▲ 권익위원장, 제주공항 지연 사태에 "신고 들어온다면 면밀히 수사"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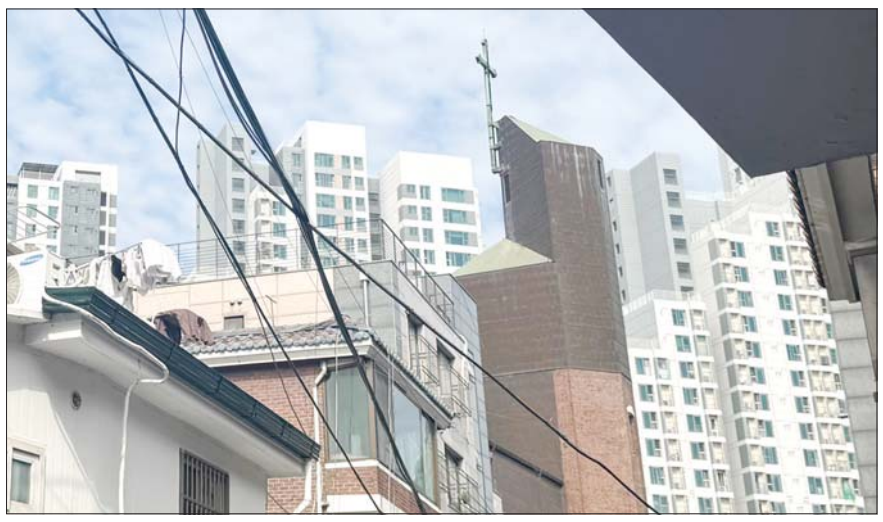
▲ 김정은 '뇌출혈 사망' 소문 이어 '대역 의혹'까지…가짜뉴스 파장

▲ 여야, 대한체육회 국감서 '운영 부실' 질타…병역 혜택 논란·징계 지연 도마

▲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흑석12구역 신속통합기획 '불발' 원룸·상가 밀집지역 제외 가능성

주민 재개발 반대동의율 24% 넘겨
재개발추진委, 주민 설득·구역 조정
"1500~1700가구로 줄어들 수 있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6-25번지 일대(가칭 흑석12구역)의 저층 주택가. 20일 오전, 노후 주택과 다세대주택 뒤로 흑석뉴타운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이 보인다. /이현진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에서 2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추진지로 주목받았던 흑석동 186-25 일대(가칭 흑석12구역)의 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서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재개발추진위는 반대가 많은 상가·원룸 밀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동작구청과 서울시,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흑석동 186-25 일대의 주민 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서면서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동작구청 관계자는 "반대동의율이 20%를 넘으면 후보지 추천 여부를 재검토하고, 25% 이상이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흑석동 186-25 일대의 재개발 추진 면적은 약 8만8575㎡로 추진위가 당초 207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구상하면서 흑석뉴타운 일대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후보지로 기대를 모았다.

이 지역은 과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들어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된 곳이다. 인근 흑석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졌다.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4월 31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7월에는 전용 59㎡가 26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재개발 추진지역에 있는 명수대삼익빌라에서는 올해 7월 전용면적 224.14㎡가 21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8월에는 비슷한 면적인 전용 217.58㎡가 27억원에 손바뀜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추진위가 파악한 토지등소유자는 652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반대동의율 25%에 해당하는 인원은 163명이다. 현재 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선 만큼 추가로 1~6명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 2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반대동의율은 구청이 적용하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유효 반대동의서 집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상정 보류는 추진위 측의 요청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흑석12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반대동의율이 20%를 넘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에는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 신청 때는 반대 주민 설득과 일부 구역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역 조정 대상으로는 반대가 많은 외곽의 상가·원룸 밀집지역이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당초 남아 있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해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고, 구청과 서울시 입장에서도 힘들더라도 다 같이 가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이 빠지면 당초 2000가구를 웃돌던 계획이 1500~17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와 원룸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굳이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유리하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젊은 투자자도 있었다"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매수는 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LS그룹, 주요 계열사 실적 신기록 행진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 중심 성장세
LS일렉트릭, 지난해 연간 실적 돌파



LS그룹(회장 구자은·사진)의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가 계열사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 등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전력기기·케이블 공급 증가로 연결되면서 주요 계열사들이 분기 최대 실적을 내거나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기에 넘어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8778억원, 영업이익 2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4.4%, 131.7% 증가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북미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과 초고압 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북미 매출은 약 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25% 늘었다. 제품별 매출은 배전반이 전년 동기보다 120%, 초고압 변압기는 10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낮은 양산형 배전기기 매출도 32% 늘며 수익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 4분기부터 100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이어갔다.

전선 계열사인 가온전선도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향 배전케이블 수출과 현지 자회사 LSCUS의 공급이 늘면서 3분기 매출은 9865억원, 영업이익은 5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9%, 99.1%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 2조6194억원과 영업이익 1160억원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모두 웃돌았다.

LSCUS는 LS전선과 협력해 미국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를 납품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단지용 케이블 공급도 늘어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부문의 실적 호조는 유럽과 동남아에서도 이어졌다. LS에코에너지는 유럽·북미향 전력케이블 수출과 아시아 지역 버스덕트 공급 확대에 힘입어 3분기 매출 3515억원, 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0%, 50.2%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 9873억원과 영업이익 675억원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케이블 시공 사업을 하는 LS마린솔루션도 해외 프로젝트 확대와 공정 효율화로 수익성을 높였다. 3분기 매출은 7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5%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72억원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대만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매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통신케이블 설치 사업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자회사 LS빌드윈도 아시아·중동 공사의 시공 효율을 높였다. 증설 작업으로 매출 공백이 발생했던 포설선 GL2030은 이달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부터 본격 투입됐다. 연결 기준 수주잔고는 약 82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약 3.4배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삼바 'SBE303', 美 FDA 패스트 트랙 지정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독자 신약 연구개발 역량 입증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독자 신약 개발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입증하며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첫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규제 당국의 신속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개발 초기부터 위험 관리와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SBE30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패스트 트랙'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SBE303은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 '넥틴-4'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다. 이번 패스트 트랙 지정은 기존 넥틴-4 표적 치료제 투여 이력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SBE303의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두산에너빌리티, SMR 기자재 사업 키운다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사별 협력 현황·전략 밝혀
이득규 수석 "글로벌 수요 적극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 사업을 확대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의 국가 단위 사업 구조와 달리 SMR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주요 설비의 공장 제작 비중도 커지면서 다양한 원자로 설계에 대응하는 기자재 제작·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득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수석은 지난 20일 산업교육연구소 주관 'SMR 주요 동향 및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전략' 세미나에서 주요 SMR 개발사별 협력 현황과 제작 전략을 밝혔다.

이 수석은 기존 대형 원전과 SMR의 사업 구조를 각각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에 비유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자국의 설계·제작·건설·운영 기업들이 협력하는 국가 단위 사업 구조였다면, SMR은 원자로 설계 전문기업이 국경을 넘어 기자재 제작사·건설사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로 설계 전문기업들이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문 제작사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에 대응해 미국 주요 SMR 개발사와 핵심 기자재 공급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뉴스케일파워와는 지난 2019년부터 제작성 검토를 거쳐 초도 소재 제작에 착수했다. 뉴스케일파워가 참여하는 미국 테네시밸리전력청(TVA)·엔트라원에너지의 6GW 규모 SMR 건설 협력사업과 최종투자결정(FID)이 승인된 루마니아 로파워(RoPower) 프로젝트에 맞춰 후속 기자재 발주에 대응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는 원자로 16기분의 핵심 소재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예약계약을 체결했다. 엑스에너지가 추진 중인 미국 다우(Dow) 화학공장 대상 80MW급 고온가스로 4기 배치 사업과 아마존과의 5GW 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맞춰 후속 기자재 제작을 준비 중이다.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하는 345MW급 나트륨냉각고속로(SFR) 사업에서도 초도 기자재 3개 품목의 제작 계약을 맺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건설허가를 취득했으며, 테라파워는 메타와 최대 8기의 원자로 건설 협력을 발표하는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하는 혁신형 SMR(i-SMR)의 설계 구체화에 참여 중이다. 170MW급 원자로 4기로 구성되는 i-SMR은 오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SMR 기자재 제작은 설비 일체화로 인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일체형 가압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에 증기발생기 등 주요 설비가 집약돼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나선형 증기발생기 튜브 제작, 고온·부식 대응 소재 적용, 협소한 공간 내 기기 배치 등 정밀한 제작 및 조립 기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수석은 "SMR 기자재를 전량 자체 제작하기보다 협력사와 공동 제작 및 외주 생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자체 인프라와 공급망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SMR 기자재 수요를 적극 수주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metro

"기술 주도 시장 조정시 타격 입을 수 있어"

›› 1면 '반도체 상승 베팅…'서 계속

반도체지수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탓이다. 9일 만에 반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일(현지시간) 0.29%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18일까지 8거래일 동안 15.7% 떨어져 2008년 10월 이후 최장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의 투자플랫폼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매우 경기 순환적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잊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가 크게 노출된 상황에서 기술 주도 시장 조정이 일어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외 주식시장을 넘나들며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 온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시장을 떠받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우고 채용하고 정착까지… 반도체 인력 생태계 구축 속도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❹ 지역 인재 선순환

서남권 핵심인재 2.3만명 양성 추진
산학연 협력 기업 취업 연계 강화
계약학과 신설·정원 확대 인력 확보
병역특례 인센티브 등 지원책 검토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확충
전문인력 유입·안착 성패 가를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뉴시스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특별법)이 20~21일에 걸쳐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 키워낸 엔지니어를 지역의 첨단기업에서 고용하는 산·학·연(기업·학교·연구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초광역특구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메가특구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인재 2만3000명 필요

반도체는 첨단을 달리는 산업인 만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팹(생산 시설) 1기 당 근무 인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약 3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문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1400명으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4기가 조성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약 5600명의 엔지니어급 수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 시설과 함께 연구·개발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는 만큼, 지역의 고급 인력이 모이는 총본산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생산라인과 함께 400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집적된 핵심 R&D(연구개발) 거점으로 기능하고,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역시 규슈 지역 대학과 연구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핵심 인재 2만3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2030년 생산 개시 시점까지 최소 1만명 규모의 현장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부터 오퍼레이팅 등 다양한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연간 6333명 배출하고 있다. 전남·광주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2개소, 일반대학 및 대학원 19개소, 전문대학 9개소, 특성화고 22개소 등 반도체 관련 학과 및 학교의 정원은 1만8823명에 이른다.

전남연구원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학사급 이상 엔지니어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출 인력이 한 단계 높은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조성해 신속한 고급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생산공정 경험을 보유한 인접 산업 재직자에 대한 전환교육을 통해 반도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내 전략산업 영위기업(병역지정업체) 종사자를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때 우대해주는 '병역특례 인센티브' 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주여건 조정이 프로젝트 성공 핵심

대규모 전문 인력의 삶의 터전이 될 초광역특구인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주여건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구전략사업 및 특구기업·특구기관에 대해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폭넓게 부여해 정주여건 조성 관련 규제 개선책 방안이 담겼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발의 '초광역특구법'… 소득 상위 3% 주52시간·휴일수당 예외

관리자·연구개발 전문직 특례 대상
선택근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서 4년으로 연장
노동계 강력 반발 속 재계는 환영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해 경영계·노동계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규제 적용 '예외' 방안이 담겼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린다.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의 경우, 주52시간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휴일·야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제132조는 관리자와 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다.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56조에 규정돼 있다. 회사 측은 노동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법률 준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일이 많을 때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엔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로 바쁜 주에 55시간, 한가한 주에 25시간 일하는 식이다. 현재 이렇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업무는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R&D 업무는 최대 3개월이다. 법안은 이를 모두 최대 6개월로 늘렸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역시 노동자와 서면 합의 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됐다. 법안 제77조는 특구 내 외투기업이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또 법정공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투기업에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노동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직후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호남 6GW·용인 15GW… 한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속도

호남 6GW 공급계획 연내 확정
용인 15GW 전력망 내년 매듭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첨단 반도체 거점인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연내 누적 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용인 산단 역시 내년 마지막 협약을 끝으로 전체 전력망 구상을 완성할 방침이다.

21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 반도체 산단의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연내 체결하기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2단계 협약에는 약 3G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1개와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1단계로 확보한 3GW에 이번 물량이 더해지면 총 6GW 규모의 전력 공급 계획이 마련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기업들과 전력공급 협약을 맺고 초기 팹 가동 대응을 위한 1단계(3GW) 설비 사전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한전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단계 송전선로 모두 민가 대신 국도와 하천 부지(황룡강, 49번 지방도 등)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15GW의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내년 전력망 구상을 일단락 짓는다.

용인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국가산단에 9GW,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에 6GW의 전력이 투입된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6GW 협약을 모두 마쳤다.

삼성전자 국가산단 역시 2024년과 올해에 걸쳐 6GW가 확보된 상태로, 내년 마지막 3단계(3GW) 협약이 체결되면 용인 전체의 전력 공급 계획은 완성하게 된다. 다만 전력 공급 협약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준공 시점은 기업들의 팹(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율될 전망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전력망 구축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들의 투자 및 공장 조성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목표 시점을 2028년 말로 수정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 확대 속도… 전력·용수 확보 '변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약 360조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6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첨단3지구는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❹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과 전남광주에 총 76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이 생산시설 확대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약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6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다만 광주 투자는 기반시설 확보 등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실제 투자 시기와 규모는 산업단지 조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용인 국가 산단에 360조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6기 건설 추진
공장 가동에 약 9GW전력 필요
현재까지 약 6GW 규모 공급 협약

일정 맞춰 전력 공급시설 확충 필요
LNG 발전소 3기 활용 방안 추진

삼성전자가 국내 생산거점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시장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증이 있다. 특히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생산능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설비를 장시간 가동하고 제조 공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도 송전망 확충과 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용인 9GW 전력 수요…6GW 협약 이후 추가 공급 협의

우선 용인 국가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은 약 9기가와트(GW)로 추산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GW 규모의 공급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3GW에 이어 올해 3GW가 추가됐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나머지 3GW에 대한 협약을 내년 중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력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에는 단계별 공급시설 구축과 비용 분담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협약 체결이 곧바로 전력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용인 국가산단에서는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활용하고, 이후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만큼 관련 시설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 광주 신규 생산거점 조성…전력·용수 기반시설 확보 과제

용인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공장 2기를 건설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당시 삼성그룹이 제시한 호남 지역 전체 투자 규모는 425조원으로, 반도체 외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에너지 사업 등도 포함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시설, 전문인력과 정주 여건 확보 등을 투자 추진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용인과 달리 신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기반시설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장기적으로 약 6.3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우선 약 3GW를 공급할 수 있는 1단계 시설을 구축한 뒤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확충해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연내 추가 3GW 규모의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앞선 1단계 사업을 포함해 약 6GW의 전력 공급 계획이 마련되지만 실제 공급시설의 준공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력 공급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호남권 1단계 사업비를 공공과 민간이 전기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고 민간 부담금 일부에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업용수 확보도 전력 공급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세정과 장비 냉각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용수 공급망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 신규 생태계 구축위해 정부 인프라 지원 급선무

국내에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과 소재·장비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삼성전자 역시 경기 평택과 화성 등에서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 해외 신규 공장보다 인력 확보와 공사 진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 지역에 425조 규모 투자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 조성

장기 전력 수요 6.3GW로 추산
송전망 건설 비용 분담은 '과제'
공업용수 공급시설도 마련해야

신규 생산거점·반도체 전공정
장기 계획 통해 생태계 갖춰야

그러나 광주와 같은 신규 생산거점은 수도권과 여건이 다르다. 각종 인허가와 민원부터 생산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부품 공급을 담당할 협력업체 기반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전공정은 대규모 설비투자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전문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입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전공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전력, 공업용수, 협력사 생태계가 함께 갖춰져야 해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추진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5~10년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공정은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함께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장시간 가동되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생산 일정과 설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전설비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24시간 끊김없는 공급이 관건"이라며 "인프라가 제때 뒷받침되느냐가 호남 반도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단합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SK 이노베이션

AI 시대 전기화 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SK 온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조희대 탄핵안 전달한 조국혁신당… 민주당은 '신중 모드'

한병도-김준형 각 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국감 이후 국조 추진 검토
혁신당, 구체적인 방안 논의 요청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공동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약 10분 간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을 따로 전달했냐'는 질문엔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고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이후에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 모두 발언 등 일부를 공개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행동을 촉구했다"면서 "진보 정당 공동 TF 구성과 10월 말 (김건희) 구속 만료 전 입장 정리를 요청했고 한 원내대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에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회동을 마친 후 한 원내대표와 민주개혁진보정당 의원 전체에 친전을 발송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친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전달해 드리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와 헌법적 근거를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 올 민주당에 역풍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남은 재임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탄핵 추진의 실익이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는 조 대법원장 탄핵의 여론을 지켜보며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 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당이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운영위서 증인 채택·막말 논란 충돌

대통령 부부 출석 놓고 野 "성역 없어"
與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근거 대라"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성역이 있는가"라며 맞섰다.

◆與 "정책 국감을 정쟁으로"…野 "누구든 의혹 있으면 불러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겠다"고 경고했다. 관저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취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국감 대상은 국정이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 권한도 없다"며 영부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업무와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관련 질의는 담당 비서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책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책 국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7개월째인데, 아직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고집하고 있다"며 관저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속사정을 아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뿐이다. 그래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는가"라며 "국회의원이 국정에 문제 있는 사람을 증인 신청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與 "의혹 있다면 근거 대라"…野 "'김현지 인사개입' 사실확인 해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대라"며 누가 언제 어떤 인사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실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국감장에 불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사람 잡는 자리가 아닌 문제를 잡는 자리"라며 "(국민의힘은) 정책에 집중하고 자료를 많이 살펴봐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인사 의혹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내란 부정·박지원 막말 논란에 與野 공방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은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고 내란범"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5·18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전체를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나라면 자살한다'고 발언했다며 맞섰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군산경찰서에 대통령표창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군산경찰서에 대통령표창(단체)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감찰관 부활 임박… 최길수 임명 초읽기

여야,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
대통령 주변 감찰체계 복원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조만간 재가동될 전망이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빠르게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 최길수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 참모(측근)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찰체계가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합의를 통해 오는 2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최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생겨난 제도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지만 직무수행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간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계속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이 추진됐으나 국회 추천 과정의 여야 이견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 관리와 별개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상시 감찰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가동하게 된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권한이 맞물리거나, 고위 참모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등을 감시하는 기구가 10년 만에 기능하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추미애 지사·부승찬 의원' 경고

국가직 소방관 '재정 빨대'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향해 '재정 빨대', '소방이 재정 쪽쪽' 발언 등을 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방지 촉구를 의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소방공무원의 재정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에서 도비 및 시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쪽쪽'이라는 발언을 해 추문에 휩싸였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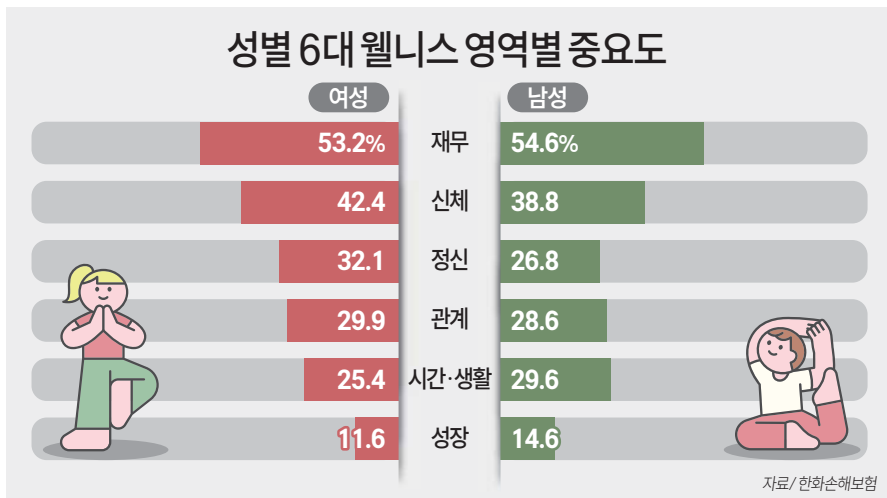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자신 돌봄·노후 준비·일상 고민까지… '여성의 삶' 살핀다

한화손보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
20~69세 여성 3000명 온라인 조사
"노후준비·부양부담 걱정 확인"
필요 지원, 상품·서비스 반영키로



"저를 위한 어떤 일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화손해보험의 플러스클로버(PLUS CLOVR) TV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 하은미 씨는 21일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패널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과 아이의 병원·문화센터 일정으로 가득 찬 일정표에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것. 그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작은 일정부터 의도적으로 넣어보겠다고 했다.

자신을 돌볼 시간부터 노후 준비와 부양에 대한 경제적 걱정까지, 여성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이 많다. 한화손보는 여성 3000명의 삶을 분석해 저마다 다른 우선순위와 충족 수준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상품·서비스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재무 중시하지만 만족은 낮아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새로운 여성 라이프의 발견'은 칸타코리아가 지난 7월 7~16일 만 20~69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토대로 했다. 연구소는 심층인터뷰 등도 병행하며 신체·정신·관계·성장·재무·시간 및 생활 등 여섯 영역을 살폈다.

재무를 삶의 우선순위 1·2위로 선택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무 만족 응답은 40.7%로 여섯 영역 중 가장 낮았다. 만족 응답은 7점 척도에서 5~7점을 고른 비율이다. 연구진은 노후 대비와 저축·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등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한 수요에 주목했다.

김지혜 펨테크연구소 연구원은 재무 관련 조사 결과를 보장·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층인터뷰에서 여성들의 노후 준비와 부양 부담에 대한 걱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는 답변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중시하고 얼마나 충족하는지는 달랐다. 연구소는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생애주기 특성 등을 종합해 여성의 삶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미래의 선택권을 위해 현재의 시간을 쏟는 '숨 가쁜 생활 추격자'와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계에 시간을 쓰는 '시간 조율자' 처럼 서로 다른 삶의 무게중심을 제시했다.

보고서 자문에 참여한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같은 연령대와 생애주기에도 지향하는 가치와 취향,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연령과 가족 내 역할만으로 여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복감 관련 분석에서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삶의 통제감'이 주목받았다. 분석에 포함한 요인 가운데 행복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시간과 자원을 스스로 배분하는 데 의미를 뒀다.

◆ 유형 테스트·휴식 체험으로 접점

발표 현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이 유형 테스트도 안내됐다. 김 연구원은 책자의 QR코드로 접속해 네다섯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는 더 많은 문항을 사용했고 간이 테스트는 쉽고 빠르게 자신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손보는 일상 돌봄을 지원할 수단으로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제시했다. 고은해 펨테크연구소장은 "보험사 혼자서 일상 돌봄을 완성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의 기업·브랜드와 협력해 고객의 일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 한남사옥에서 여는 '웰니스 크루즈 한남'에는 펨테크·웰니스·문화 브랜드 30여곳이 참여한다. 행사 가이드북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과 음악·향을 활용한 휴식 공간 등을 소개한다. 운동과 미식, 휴식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돌아보도록 기획한 행사다.

연구를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로 옮기는 작업은 후속 단계다. 김 연구원은 "12개 유형만으로 당장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유형별 수요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기간 단축 '원형지 분양'… 이주 등 과제 산적

李 대통령 '공급 전격전' 주문
원형지 분양·모듈러 주택 검토 지시
모듈러 주택, 미리 제작 후 현장 조립
기간 30% 줄지만 공사비 30% 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이 공급기간을 줄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택지 조성과 건축 공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빠른 입주로 이어지려면 높은 공사비 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인천 계양신도시를 방문해서는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의 공기 단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은 부지 조성을 마치지 않은 토지를 공급해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한 뒤 건설사에 넘기는 것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중복 작업을 줄이고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개발할 여지도 생긴다.

다만 보상과 이주 등이 늦어지면 사업자가 일찍 참여하더라도 실제 착공은 늦어질 수 있다. 공급기간을 줄이려면 사업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반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설치와 지반 처리 등을 누가 맡고 추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사업자의 참여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지, LH가 시행하면서 민간에 부지 조성까지 맡기는 방식인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와 내부 마감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을 통해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줄고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13층·106가구)은 착공 후 14개월 만에 건설됐다.

문제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공사비다. 국토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발주를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초과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설계와 발주체계도 과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및 전문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모듈 제작과 시공 특성이 설계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공사와 모듈 제작을 따로 발주하고 제작업체를 최저가로 선정하면서,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원형지 공급과 모듈러 주택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입지와 사업성, 수요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원형지는 조성된 택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더라도 사업자가 추가로 부지를 조성해야 해서 실제 비용 절감 폭은 불확실하다"며 "입지가 좋아 수익성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면 토지만 싸게 확보한 뒤 개발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조감도. /현대건설

'전통 부촌' 압구정 재개발, 소형 쟁탈전

고가주택 연간 수억 종부세 예고에
조합원들, 소형평형 경쟁 치열해져
2구역, 희망평형 설문 재실시 계획
세대수 조정에 최소 1년 소요 우려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을 강화한 세법개정안이 재건축 사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조합원들이 대형평형을 대부분 가져가고 일반 분양에는 중소형만 나오던 것이 이제는 권리가액이 낮은 조합원의 경우 임의로 대형 평형을 배정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다. 전통 부촌인 압구정조차 소형 평형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형별 세대수를 조정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조합은 희망평형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압구정 2구역은 압구정동 434 일대 신현대파이트 9·11·12차 단지 1924가구를 최고 지상 66층, 총 238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2조7489억원, 전체 사업비로 규모는 4조원 안팎에 달한다.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와 2028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압구정에서는 2구역의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평형 배치가 걸림돌로 부상했다.

압구정 2구역은 지난해 10월경 제4차 희망평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50평대 이상 대형 평형을 151세대 정도를 더 늘렸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30평대 조합원 중에서 76평, 84평은 물론 펜트하우스 희망자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평형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대형을 늘리는 조정안에도 항의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다. 40억원대가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50평대 이상의 경우 매년 수억 원대의 종부세를 감당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세금부담을 피해 소형 평형을 집중 신청할 경우 권리가액이 낮은 30평대 조합원들이 남은 70, 80평형이 임의로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평형별 세대수 조정과 배치도 수정이 '중대한' 설계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정비계획변경 접수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면 최소 1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

압구정 2구역은 오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이번 기간에 희망평형 설문조사지를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의료비 결제 실증

국내 결제사업자 KSNET 협력
외국인 환자 대상 코인결제, 원화 정산

신한은행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고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실증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결제사업자 KSNET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의료비 결제·정산 서비스의 실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에 대응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기존 원화 정산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제한적인 시범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제 과정은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해외 규제사업자가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국내로 송금하고, KSNET이 의료기관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한은행은 결제 대금의 국내 수취와 원화 정산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실증의 핵심은 국내 참여기관과 의료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매매하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리 부담 없이 해외 결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를 납부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량용 반도체 원팀’ 출범… “이르면 2029년 양산차 적용”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

정부·기업 관계자 90여명 참석
국산 반도체 상용화 기반 강화
이규석 사장 “기술 경쟁력 집중”



21일 열린 ‘제2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 본행사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대모비스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홍 현대모비스 전무,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이의현 현대모비스 상무. /차현정 기자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부터 검증, 양산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29년 국산 반도체의 양산 차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21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2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기업 및 정부·학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ASK 참여 기업과 기관은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었다. 협력 분야도 기존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심에서 반도체 설계자산(IP), 소프트웨어, 패키징, 시험·평가, 기능안전 등으로 확대됐다.

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기업으로서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며 “각자의 강점을 연결하고 개발부터 검증, 양산까지 함께 책임지는 전주기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첫 포럼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19건의 협업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개발에 착수했으며 9건은 적용 목표 차종까지 선정했다. 완성차의 요구사항을 개발 초기부터 반영해 실제 차량 적용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수요 기반 개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통상부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이 참여하는 ‘차량용 반도체 원팀 TF’도 출범했다. 완성차·부품사와 IT 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등이 협력해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다.

차량용 전력반도체의 공정·평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생산하고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요기업의 실증으로 연결해 국산 전력반도체의 상용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챙기겠다”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시험·검증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차량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와 검증을 지원하는 아산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본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차량용 반도체의 양산차 적용 시점을 이르면 2029년으로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개발 중인 반도체를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입해 양산을 위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장은 반도체 개발에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차량 탑재를 위한 신뢰성 평가까지 고려하면 양산까지 약 4~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초기 적용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의 매출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파운드리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생산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대응이 어려운 분야는 해외 파운드리로 보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파운드리를 우선 활용하고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 파운드리로 보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차세대 시스템 에어컨 ‘LG 멀티 브이 7’ 첫 선

하프코 2026

LG전자, ‘멀티 브이 7’ 듀얼 AI 탑재
공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 소개



LG전자가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에 참가해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을 처음 선보였다. /LG전자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차세대 컴프레서를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하며 냉난방공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하프코(HARFKO) 2026’에서 차세대 시스템 에어컨 ‘LG 멀티 브이 7’과 공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한 LG 멀티 브이 7은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듀얼 AI’와 신형 ‘스핀엑스(SPIN X)’ 컴프레서를 탑재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다. AI 기반 자율운전으로 냉난방 효율과 운전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핵심 부품인 스핀엑스 컴프레서에는 2웨이 급유구조와 실시간 오일 상태 감지 기술 등이 적용됐다. LG전자는 컴프레서 구조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냉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 운전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도 선보인다. 전시관을 실제 주거공간처럼 구성해 냉방과 난방, 급탕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환기 제품을 연동해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통합 공기 솔루션도 공개한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가정부터 상업, 산업, AI 데이터센터까지 냉각 솔루션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화된 부품 경쟁력인 코어테크 기반의 앞선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대한전선, 김준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인수 실무 주도

대한전선이 김준석 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북미·유럽 시장 확대와 고부가 전력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한전선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인수 실무를 주도했으며, 2023년부터 대한전선 경영부문장과 경영총괄 부사장을 역임하며 경영실적 개선과 사업 구조 재편,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사장은 전력망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으로 성장 기회가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등 차세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생산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영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 사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취임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전선이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차이들이 모여 회사의 경쟁력이 된다”며 기술·품질 개선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임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국내외 계열사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약 1만 명의 삶이 대한전선과 함께한다”며 회사의 성장이 구성원과 가족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현대차, 5세대 투싼 사전계약… 기본 가격 3140만원

안전·편의사양 등 체감 가치 높여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신형 투싼의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기본 가격은 314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4세대 투싼 가솔린 모델이 2800만원대부터 판매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가격이 300만원가량 높아졌다. 다만 차체 크기와 주행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 강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는 21일 신형 투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작 가격은 3140만원이며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적용 기준 3615만원부터다. 가솔린 모델은 H-Pick 3140만원, 익스클루시브 3530만원, 인스퍼레이션 3790만원, XRT 3680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트림별로 3615만~4270만원이다.

현대차는 기본 트림부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해 체감 가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전 트림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와 앱 마켓을 기본 탑재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 등 안전·주행 보조 기능도 기본 사양에 포함했다.

차체 크기와 실용성도 개선했다.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를 기존보다 각각 60㎜, 40㎜, 30㎜ 늘렸으며 트렁크 용량은 645ℓ로 확대했다. 2열 도어 개방 각도도 넓혀 가족 단위 고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주행 성능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개선됐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93마력으로 기존보다 13마력 높아졌으며, 기존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대신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출력 245마력과 복합연비 17.4㎞/ℓ(17인치 휠·2WD 기준)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H&L 어드밴스드, 출범 이후 첫 공개채용

경영관리직·전문직 각각 채용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의 통합법인 H&L 어드밴스드가 출범 이후 첫 공개채용에 나서며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선다.

H&L 어드밴스드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직에서 각각 두 자릿수 규모의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영관리직 모집 분야는 ▲기획 ▲인사 ▲재무·회계 ▲영업 ▲생산관리(화공·기계·전기·전자) ▲안전·환경이다.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전문직은 ▲생산(화공·기계·전기·전자) ▲안전·환경 분야에서 모집한다.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일반전형과 함께 서산시 지역인재전형도 운영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AI 역량검사, 1·2차 면접, 채용검진 순이다. 경영관리직은 3차 면접을, 전문직은 필기전형을 추가로 거친다.

H&L 어드밴스드는 이번 채용을 통해 서울사무소와 대산사업장의 인력 및 주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사업재편 효과를 경영성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페셜티 소재와 친환경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中企 제조·업무혁신 열쇠 '피지컬AI'… 데이터 자산화 시급

중기중앙회, 재경부와 정책토론
金 회장, 박영선 위원장에 과제 전달

朴 위원장, 기조연설서 AI 혁신 강조
반복 업무부터 에이전틱AI로 전환
K-온톨로지 표준·AI팩토리 구축

제조데이터·노하우 자산화 강조
金 "中企 AI 대전환 주체로 참여"
업종별·단계별 맞춤 지원정책 필요



중기중앙회는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 혁신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 4번째부터)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인공지능(AI)의 판단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피지컬AI가 산업 현장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온톨로지 표준'과 'AI팩토리 구축'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피지컬AI의 확산을 위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자산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AI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틀째 행사로 재정경제부와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 혁신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AI의 2막, 중소기업의 미래를 바꾸다'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산업, 행정데이터를 통합적 구조로 연결하는 K-온톨로지 표준, 산업별 온톨로지 표준 확립, 그리고 데이터를 지식으로 만드는 AI팩토리가 기업·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학 용어에서 출발한 '온톨로지(Ontology)'는 AI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체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에이전틱·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업무와 제조현장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연결된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데이터를 지능으로 바꾸는 'AI 팩토리'를 새로운 생산기반으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성성AI→에이전틱AI→피지컬AI의 발전 수순을 참고해 견적서·회의록 작성 등 반복 업무, 주문 접수 등 업무 흐름, 오래 걸리는 병목 등 기존 업무를 에이전틱AI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표, 현장 직원, IT 담당자를 중심으로 '작은 AI전환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대한 플랫폼보단 연결 가능한 데이터와 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이날 '피지컬 AI의 비전과 중소기업 데이터 자산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로봇은 3년 뒤에도 살 수 있지만, 지나간 3년의 데이터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 현장에 쌓인 공정 데이터와 숙련 노하우"라며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업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협동조합은 공통 기준과 공동실증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제공하는 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내놓을 이유(보상)와 안전장치(주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됐으며 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재정·세제·금융·규제를 하나로 묶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이 이날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에는 ▲업종별 제조데이터 표준·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조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업종·공정별 AI·로봇 표준분류체계 마련 ▲업종 공통 AX 모듈·표준 패키지 개발 지원 ▲협동조합 중심 업종별 AX 추진·운영체계 구축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AI·AX 실무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 AX 준비도 기반 단계별 세분화된 지원체계 구축 ▲비제조분야 AI·AX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피지컬AI의 핵심은 제조현장의 데이터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질적인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수십년간 쌓아온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피지컬 AI와 연결해 제조 노하우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AI 대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산업별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AI를 신속하게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사람보다 먼저 화재현장에 로봇 투입"

FIX 2026서 만난 미래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무인소방·물류로봇 선봬
GM,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논의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탐지가 가장 우선 목표입니다."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FIX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 무인소방로봇 앞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스스로 불을 판단해 진압하는지 묻자 "다 원격이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조종해 화재 현장을 살피고 초기 진압을 돕는 방식이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기반으로 만든 이 로봇은 물을 뿌리는 장치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췄다.

같은 전시관에 자리한 현대위아의 물류로봇 'MPR(Mobile Picking Robot)'은 반복 작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이동과 물품을 집는 기능을 결합해 운반과 분류 작업을 지원한다. 위험 지역에 사람 대신 들어가는 소방로봇과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물류로봇이 한 공간에 놓였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가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기조강연장에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화두였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GMTCK) 사장은 AI가 판단과 행동에 관여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결정권과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설계에서도 사람의 감정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여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화물운송에 적용하는 과정과 무인운행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 7월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과 두 개 노선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물류거점으로 이어지는 일반도로도 운행한다. 현재는 안전요원이 탑승하며 2028년 무인운행 전환을 목표로 한다.

조광래 마스오토 이사는 기존 트럭에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하는 '마스파일럿'을 소개하고, 유상운송 실적을 정식 운행 허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혁 기자 sh95@

대구·경북 첫 통합펀드 1300억 규모 출범

연내 출자 착수, 2000억 벤처펀드 조성

최초의 지역 통합 모펀드인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가 130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갖고 대구·경북권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 울산, 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결성하는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최초의 지역 간 통합 모펀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iM뱅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이수페타시스, 화신, 한국OSG 등 대구·경북 지역의 은행, 대학, 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총 13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대구시, 경상북도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선 펀드 결성식과 함께 iM뱅크,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간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에 체결한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간 '동남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이행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이다.

/김승호 기자

HD현대로보틱스, AI 양팔로봇 첫선

정밀작업 특화 로봇 공개

HD현대로보틱스가 제조 현장의 정밀 작업에 활용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양팔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양팔과 손의 작업 능력을 높이고 자체 개발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탑재해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 2026(FIX 2026)'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양팔로봇'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능형 양팔로봇은 사람의 상체처럼 양팔과 다섯 손가락을 갖춘 로봇이다. 제한된 구역에서 정해진 작업을 반복하는 기존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제조 현장에 필요한 정밀작업 능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보행보다 양팔과 손의 작업 성능에 중점을 둔 상반신형 구조를 채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솔홈데코

'더 한솔홈데코' 새 단장

한솔홈데코가 공식 쇼룸 '더 한솔홈데코'를 새 단장해 선보였다. 21일 한솔홈데코에 따르면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 '웰니스(Wellness)'를 컨셉으로 한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은 벽과 가구, 바닥의 패턴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한솔홈데코의 '심리스(SEAMLESS)' 인테리어 자재를 경험할 수 있다. 새롭게 조성된 쇼룸은 다도공간, 주방, 욕실 등 총 3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건강케어 서비스 선봬

삼성생명과 건강관리·돌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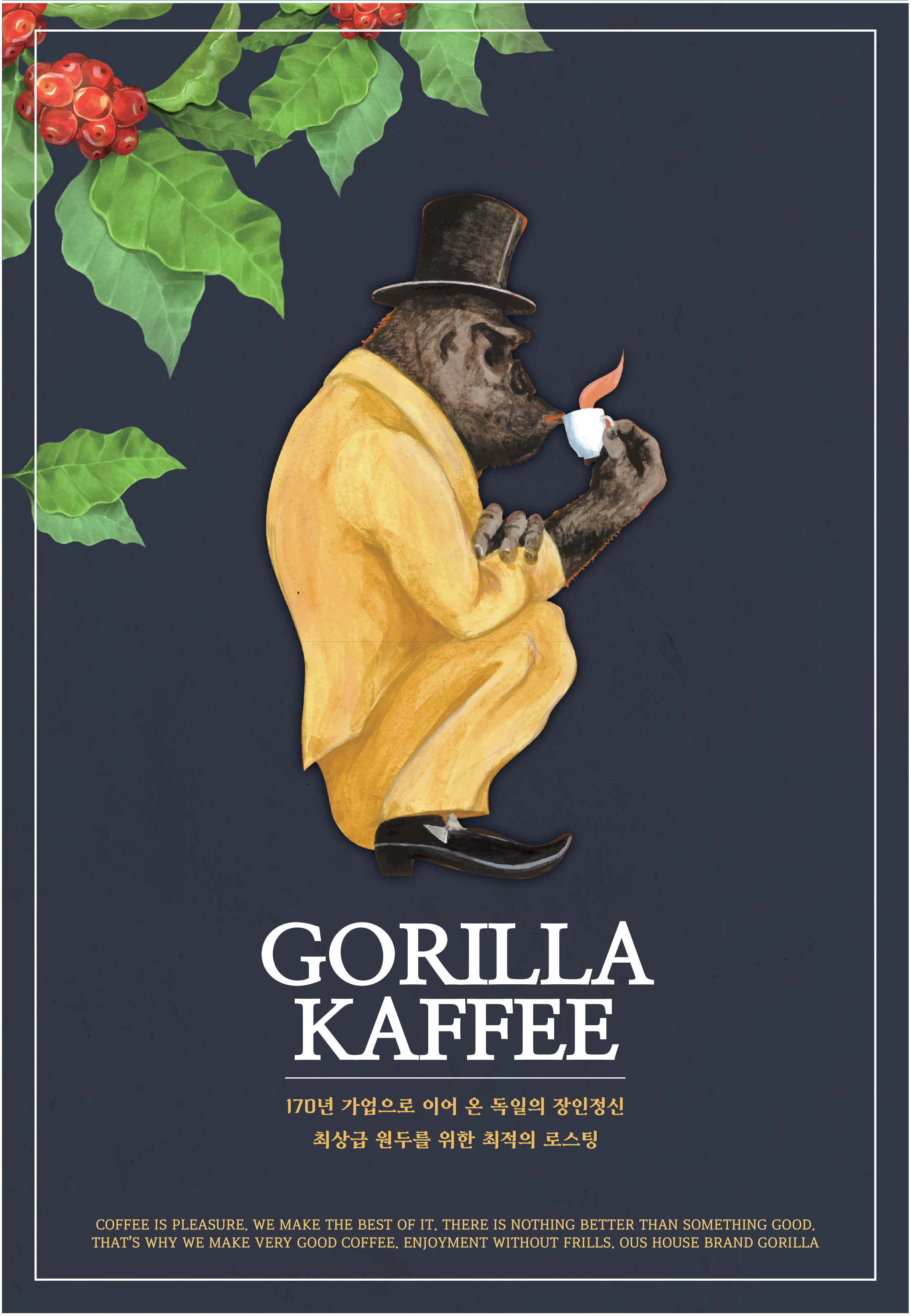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과 손잡고 '건강케어서비스'를 선보인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처음으로 건강케어서비스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건강케어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중대질환 진단 후 돌봄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그동안 가족이 도맡아 온 돌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올해 프리미엄 웨딩홀 사업 진출, 업계 최초 '크루즈 전세선' 론칭, '웅진프리드' 상조 시리즈 출시, 쉴낙원 서울제중·안양 장례식장 신규 개장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인프라를 넓혀왔다. 이번 삼성생명과의 협약으로 건강·돌봄 영역까지 강화하면서 결혼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의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집 안팎이 갤러리로… 예술 품은 주거공간

아르뮤제자이
GS건설

안산 첫 특화 설계에 1354가구 조성

GS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일원, 옛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들어서는 '아르뮤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르뮤제자이는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공동주택 4개동·오피스텔 2개동) 규모로 들어선다. 아파트 984가구와 오피스텔 370실을 합쳐 총 13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99·104㎡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84㎡A 180가구 ▲84㎡B 88가구 ▲84㎡C 90가구 ▲99㎡A 180가구 ▲99㎡B 272가구 ▲104㎡A 174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84㎡A 148실 ▲84㎡B 74실 ▲84㎡C 148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성포동과 중앙동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며, 4호선과 수인분당선인 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과 화성 어천역을 잇는 인천발 KTX(초지역 정차)는 지난달 종합시운전에 착수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산 상록수역이 정차역으로 포함된 GTX-C 노선 역시 본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NC백화점 등 유통시설이 위치하며, 노적봉공원, 노적봉인공폭포공원, 성호공원, 단원조각공원 등 녹지공간과 성포예술광장, 김홍도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단지 내부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센터에는 사우나, 스크린골프, 퍼팅시뮬레이터,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중·석식 다이닝 서비스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르뮤제자이는 안산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예술 특화 콘셉트를 바탕으로 단지 곳곳에 예술 조형물을 조성하고, 유명 작가의 작품도 함께 배치해 단지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구현할 계획이다. 단지명인 '아르뮤제(ARMUSEE)'는 예술을 뜻하는 'ART'와 미술관을 뜻하는 프랑스어 'MUSEE'를 결합했다.

홍보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6-1, 1층에서 현재 운영 중이다.

상봉·망우역 도보권… GTX-B까지 교통 호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포스코이앤씨

전용 84㎡ 308실 공급에 특화설계 적용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옛 상봉터미널 부지에 조성하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을 내놓는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은 상봉동 83-1 일원에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49층, 1개 동, 총 308실 규모다. 전 실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앞서 3개월 만에 일반분양을 마친 아파트 999가구와 함께 10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상봉역과 망우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봉역에는 향후 GTX-B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도로망으로는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했다.

생활 인프라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등 쇼핑·문화시설과 서울북부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고, 중랑천과 봉화산, 망우산 등 녹지도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는 판매 및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복합단지로 완성될 계획이다. 시행사인 신아주가 상업시설을 '트랜짓(Transit)'으로 브랜딩해 차별화된 테넌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4베이(bay) 판상형 또는 이면개방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타입별로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일부 타입은 거실과 주방에서 외부 조망이



가능한 조망형 LDK(거실-다이닝-주방)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김치냉장고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규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 오피스텔 상품 특성상 실거주 의무나 처분조건이 없고, 유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은 앞서 공급한 아파트를 통해 이미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를 검증했다"며 "펜타역세권 입지와 실거주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신축 공급… 구미 형곡동에 새 활력

형곡 센트럴 아테라
금호건설

770세대 재건축에 교육·생활시설 인접

금호건설은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형곡 센트럴 아테라'를 분양한다.

형곡 센트럴 아테라는 형곡동 141-11 일원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총 77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1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특히 형곡동에서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이자 금호건설의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구미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 형곡동은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지역이다.

형곡동은 구미의 대표적인 기존 주거생활권이다. 오랜 기간 형성된 교육·생활·교통 인프라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형일초와 형곡중을 비롯해 형곡 일대 학원가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등이 인접했다.

교통여건으로는 구미역과 구미IC, 구미종합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구미 도심은 물론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구미 도심과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는 직주근접 주거지다.

자연환경은 형곡근린공원과 금오산이 인접해 도심 속에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형곡근린공원이 자리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형곡근린공원 조망도 가능해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주거 쾌적성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공원 조망은 동·호수와 층수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상품은 전용 59㎡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4베이(Bay) 구조와 맞통풍 설계를 적용하고, 수납특화 설계를 더해 소형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관계자는 "10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자 구미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라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에 마련될 예정이다.

축구장 70개 규모 공원 앞마당… 숲세권 눈길

구미 파크원 데시앙
태영건설

초·중·고 도보통학에 1355가구 조성

태영건설은 경북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서 '구미 파크원 데시앙'을 내놓는다. 구미 파크원 데시앙은 지하 3층~지상 40층, 10개동, 전용 84~110㎡ 총 13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614가구 ▲84㎡B 40가구 ▲98㎡A 264가구 ▲98㎡B 200가구 ▲110㎡ 237가구 등이며, 전 가구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량동은 약 17만평(55만㎡) 규모의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개발되는 구미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다. 축구장 70여개에 달하는 공원을 단지 앞마당 처럼 누릴 수 있고, 금오산과도 가깝다.

단지는 문장초와 구미중은 물론 구미고, 구미여고까지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도산초, 야은초도 인근에 있으며, 도량동과 봉곡동 일대 학원가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로는 도량동과 함께 원호리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봉곡동 생활권과도 가깝다.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를 통해 대구·김천 등 인접 지역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구미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특히 대경선(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역을 이용하면 구미와 대구권을 하나의 생활권처럼 오갈 수 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동구미역 신설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지난해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에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알파룸과 세대창고 등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커튼월룩 마감과 유리난간 설계 적용으로 한층 고



급스러운 외관 분위기를 연출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러닝트랙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사우나, 코인세탁실, 영화관(프라이빗 시네마), 공유주방(다이닝 파티룸), 다목적실 등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세대당 1.64대에 달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이 중 약 80%를 확장형으로 설계해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견본주택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22-4 일원에 마련되며, 이에 앞서 구미중앙로 93(구미역 인근)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수도권·지
알짜 분양단
내 집 마련
연말 분양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가을
맞춰 일정을 조율해 온 사업장들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그간 공급이
구에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
고 있다. 서울 주요 입지에서 분양
은 반도체 벨트에서는 평택시 고덕
다. 이와 함께 최근 10여 년간 신축
지들이 대기 중이며, 규제가 부담스
도권 오피스텔 청약을 고려해 볼 수
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며, 대규모 공원으로 자연환경을 누
"주요 사업장들이 성수기를 맞아 집
약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
비사업 단지와 외곽 택지지구 간의
소진 전 자금 계획과 단지별 경쟁력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 곳곳에
단지 '풍성'
기회 '활짝'

 시장이 문을 연다. 가을 성수기에
집중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끊겼던 구도심과 도시개발사업지
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
물량이 나온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
국제화계획지구에서 아파트가 나온
공급이 드물었던 구미에서 분양 단
럽다면 부산 등 비규제 지역이나 수
 있다.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
릴 수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중적으로 분양에 나서면서 예비 청
지역별 공급 편차가 크고 핵심지 정
체감 온도차가 상존하는 만큼 통장
을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백화점·학교·한강까지… 반포 생활권 한품에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현대엔지니어링

지하철 3·7·9호선 이용 주요 업무지 접근 용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3 일원에 조성되는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적용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반포 일대에 들어선다.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는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개동, 총 16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 28세대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3호선을 이용하면 압구정과 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역에서는 7·9호선을 이용해 강남권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등을 통해 강북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잠원IC와 반포IC 등도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생활인프라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서울고속버스터미널, JW 메리어트호텔 등이 가깝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반포 스포츠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의료·문화시설도 주변에 위치한다. 서래마을과 고속터미널 일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반경 500m 이내에 반원초와 경원중이 위치하며, 기존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청담고도 올해 잠원동으로 이전해 개교했다. 청담고 이전에 맞춰 학교 주변 버스정류소와 보행환경 등 교통시설 개선도 진행됐다. 세화여중·세화고·세화여고 등 반포 일대 학교가 가깝고, 반포·방배 일대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단지에서 반포한강공원 접근이 편리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한강변의 다양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207호에 조성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북항 재개발에 달라지는 초량… 역세권 입지 주목

호반써밋 초량
호반건설

부산역 인접에 초·중·고 도보통학



호반건설은 부산 동구 초량3동 659 일원에 짓는 '호반써밋 초량'을 공급한다.

호반써밋 초량은 초량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4층, 5개동, 총 432가구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70·84㎡ 252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구 일대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초량역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서면, 남포, 동래, 연산 등 부산 주요 중심상권 및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도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로는 전통과 현대 상권이 공존하는 초량전통시장과 부산역 상권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BIFF광장, 젊음의거리 등 쇼핑·문화 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2027년 개장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북항 친수공원 등 해양 수변 문화공간도 가깝다.

교육 여건으로는 동일중앙초를 비롯해 부산중, 부산고 등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경남여중, 선화여중, 경남여고 등 지역 내 전통 있는 학군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

호반써밋 초량은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는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가능하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충족 조건을 갖추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받아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추첨을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81-6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평택 행정타운 옆… 반도체 배후주거지 부상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우미건설 컨소시엄

삼성전자 캠퍼스 인접에 623세대 공급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62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는 100% 분양이 완료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후속 단지다.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세대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다. 특히 두 단지는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청 신청사와 시의회 등이 이전 조성되는 행정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근린상업용지와 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교통 여건은 평택 지제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 평택지제역),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통해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GTX-A 노선 평택 연장은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GTX-C 노선 평택 연장과 BRT 노선도 계획돼 있어 광역교통 여건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 서쪽에는 고덕8초(가칭)가 2028년 9월 개교할 예정이며, 고덕6중(가칭)도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고덕8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 택지지구 내에는 알파탄약고 이전 부지를 활용한 문화공원이 계획돼 있고, 함박산 중앙공원에는 평택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인근 고덕국제학교 부지에는 미국 워싱턴주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이 설립·운영을 맡는 국제학교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하는 학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창밖 가득 펼쳐지는 녹음… 파노라마 조망 선사

검단 센트레빌 그랑포레
동부건설

10만㎡ 근린공원 연계에 남향 중심 설계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검단 센트레빌 그랑포레'를 분양한다.

검단 센트레빌 그랑포레는 인천 검단구 오류동 141-1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9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843가구 규모다.

단지는 검단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단지와 함께 축구장 약 14개 규모인 약 10만㎡의 검단16호근린공원이 들어서며, 공원과 주거단지를 하나로 잇는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단지 내 데크와 공원 산책로를 연계해 일상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남향 중심 배치와 공원과 숲 조망을 파노라마 파크뷰로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만 조망 여부는 동·호수와 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단봉초와 단봉중이 인근에 있으며, 공원 산책로와 연계된 통학 동선을 계획해 자녀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고려했다.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와 단봉늘봄도서관도 가깝다.

교통 여건으로는 인천2호선 검단오류역과 왕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단IC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로망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검단양촌IC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3-61대로가 예정돼 있어 향후 검단 서북부의 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와 봉수대로·경명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서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의 상업·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코스트코 청라점 등 청라국제도시의 다양한 인프라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남향 중심으로 공원 조망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고, 총 843가구 규모에 걸맞은 조경과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한다. 견본주택은 인천 검단구 백석동 56-2에 마련될 예정이다.

“벼락거지 면하려다”… 단일종목 ETP로 6.3조 잃은 개미

40대, 전체 손실 규모 가장 커
70대 이상, 계좌당 평균 손실액
2994만원… 전체 평균 2.6배
‘음의 복리’로 앞으로 더 첩첩산중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단일 종목 ETP 손실에 절망하는 투자자 이미지

2년 차 직장인 서모(30)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하락은 기회”라며 적금을 깨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서씨는 “계속 주식창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6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손실 규모는 40대에서 가장 컸지만 계좌당 손실액은 70대 이상이 약 3000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ETP 상품 출시일인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키움·삼성·NH·한국투자·KB·신한·메리츠·하나·대신 등이다.

전체 손실 가운데 상품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평가손실은 보유 상품의 매입원가와 8월 14일 종가의 차이를 계산한 금액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전체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40대는 16만5200개 계좌에서 2조53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50대가 15만8000개 계좌에서 1조8655억원, 30대가 11만7300개 계좌에서 1조912억원의 손실을 냈다.

반면 계좌당 손실액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54만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인 약 1156만원의 2.6배 수준이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이었다.

8월 들어서는 손실을 안고 보유하던 상품을 실제로 팔아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흐름도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 14일 2조3242억원으로 보름여 만에 3604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직 팔지 않은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손실은 6조33억원에서 6조3130억원으로 3097억원 확대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하락장에서 기초자산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하락률이 더 커서다. 실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는 약 42.31% 하락했다. 같은 기간 ‘1Q SK하이닉스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는 81.98% 추락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복리 효과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닌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한다. 주가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를 때는 복리 효과로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요즘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손실과 회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이는 ‘음의 복리’가 발생한다.

예컨대 주가가 100에서 하루 10% 하락해 90이 된 뒤 다음 날 10% 상승하면 99에 그친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하락해 80이 되고, 다음 날 20% 상승해도 96에 머문다. 기초자산은 1% 손실에 그치지만 레버리지 손실은 4%로 확대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하락률이 낮았음에도 레버리지 손실률은 더 크게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형 증권사는 회사채, 중소형사는 단기사채

신용거래융자 잔고 31조1083억 집계
단기사채 발행, 전년比 42.2% 늘어
단기조달 의존 때 시장 변화에 취약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자금 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나 채권시장 위축으로 단기자금 차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1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확대와 맞물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이 늘고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단기 자금 조달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커버리지 증권사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총액은 2025년 말 11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8조7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증권업계 전체 신용공여금은 지난해 6월 말 45조원에서 올해 6월 말 63조9000억원으로 42.2% 불어났다. 이 가운데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공여금 증감과 전자단기사채 증감 간 상관계수는 중소형사가 0.38로 대형사(0.11)를 웃돌았다. 신용거래융자가 늘어날 때 중소형사의 전자단기사채 조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대형사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재원 NICE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용거래융자 증가에 따른 증권사별 대응 과정에서, 대형사는 회사채 발행 등의 다변화된 수단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이 높은 반면, 중소형사는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서 단기사채 발행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단기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장 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비교적 높은 단기자금 조달 의존도는 채권 시장 위축이나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증권사의 차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통상 신용공여 만기는 90일 내외이지만, 신용공여 만기는 고객 및 기초자산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서 잠재적인 만기 미스매칭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에서도 ‘빚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신용융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와 고객 보호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자기자본 상위 10개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은 자율 규제에 돌입했다. 종투사들은 지난달 발표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이달 1일부터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90% 이내에서 자율 관리한다. 연내에는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을 50%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특정 종목에 대한 융자 집중관리 기준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교보증권, 친환경 캠페인으로 1000만원 기부

밀원수 식재로 꿀벌 서식환경 개선

교보증권은 친환경 캠페인 ‘드림이 그린레이스’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드림이 그린레이스’는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해 기부하는 교보증권의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컵 사용, 중고물품 나눔 등 탄소저감 활동이 3500여건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1000만 포인트 적립을 목표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기부금은 이상기후로 서식환경이 악화하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밀원수 식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밀원수는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에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로, 서식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박기영 환경재단 국장이 지난 20일 드림이 그린레이스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교보증권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증시 급락에 엇갈린 공모주 수요 예측

기업 확약 비율 중앙값 43% → 5% ‘뚝’

공모주 수요예측 결과가 기업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반기 들어 공모가를 희망 범위 하단 이하로 정한 기업이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고 상장 후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기관의 약속도 크게 줄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41곳(스팩 제외) 가운데 32곳은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에, 9곳은 하단 이하에 확정했다. 하단 이하 기업은 상반기 20곳 중 3곳이었지만, 하반기에는 21곳 중 6곳으로 늘었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보다 낮게 정한 3곳은 모두 하반기에 나왔다.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상반기 기업의 확약 비율 중앙값은 42.8%였지만 하반기에는 4.7%에 그쳤다. 평균 기관 경쟁률도 상반기 1013대 1에서 하반기 655대 1로 떨어졌다.

기관 경쟁률에 따라 공모가 결과도 뚜렷하게 갈렸다. 하단 이하로 확정한 9곳은 모두 경쟁률이 400대 1에 못 미쳤고, 평균은 159대 1이었다. 반면 경쟁률 400대 1을 넘긴 29곳은 모두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했다.

최근 증시 급락이 수요예측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염태우 IR큐더스 매니저는 “최근 코스피가 크게 떨어지면서 공모주 수요예측에서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우려가 섞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증시가 좋을 때 산정한 공모가는 비교 기업 주가가 받쳐줘야 논리가 맞는데,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지면 괴리가 커진다”며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면 공모가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티앤이코리아와 크리에이츠는 20~21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김아영 기자 aykim@

현대차증권, 초등생 33명에 금융교육 진행

‘1사 1교 금융교육’ 추진

현대차증권은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 신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감독원 주관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현대차증권 소비자보호팀 이승기 팀장과 이상준 책임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해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소비의 기본 개념부터 저축과 투자까지 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혔다. 금융보드게임 ‘머니스피너’를 활용한 체험 활동도 마련해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기 현대차증권 비자보호팀장이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시 신봉초등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지난 8월 포천 신봉초등학교와 서울 아주초등학교, 화성 신백중학교 등 3개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맺었다. 신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각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 성동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송전망 주변 주민에 햇빛소득… 입지 선정 투명성 높인다

기후부, 지자체 지원금 지역에 배분
복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허용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전면 공개


송전탑 /유토이미지

앞으로 송전망 주변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과 소득 창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변 마을에 태양광 소득 지원… '계통햇빛소득마을' 발굴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설치 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도 기존 읍·면·동에서 실제 피해를 입는 리·통 단위로 좁히고, 복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도 허용해 주민 밀착형 수익 구조를 짰다.

여기에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한전과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해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입지선정 '깜깜이' 해소… 주민 참관 및 자료 공개 확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자료까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입선위는 또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해야 하며,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나 부지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선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동일 시·군·구에 걸칠 경우 입선위를 통합·병행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철탑 공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환경 파괴와 토지 이용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워라밸+4.5'로 노동시간 줄이고 생산성 ↑

노사발전재단, 기업 사례 2건 발굴
기업 운영·서비스 품질 그대로 유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이 '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의 사례 2건을 발굴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부문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사업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운영위는 지난 5월 발족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 34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제3차 운영위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산지역 2개 기업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 소재 영창에코(제조업·31명)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신발 인솔(깔창)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성수기에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개선과 숙련인력 유지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기업은 '일하는 방식 변화+제조 과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 냈다.

우선 전 직원 노동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줄였다(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 그 대신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병목공정에 다기능공을 배치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제품 생산계획·실행 시스템(ERP·MES)을 도입해 제조 과정을 혁신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인솔(깔창) 1만 족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8%(50시간→ 46시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디아이앤씨(정보통신업·58명)는 '업무 자동화+근로시간 관리 정비'로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기업은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로, 업무 특성상 잦은 연장·휴일근로 탓에 핵심인력 유출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 35시간제(매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점심휴게시간 15분 확대)를 도입했다.

이어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아울러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해 근로시간 관리와 채용제도도 정비했다. 업무 쏠림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도 3명 충원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 단축 후에도 유지보수 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됐고, 월간 보고(증빙)자료 작성 소요시간이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운영위 참석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애로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진공 지원 '현대오일터미널' 증설 준공

100억 금융 지원… 연료 저장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한 '울산항 현대오일터미널 제1선석(배가 접안하는 전용공간) 증설사업'이 준공했다. 이는 석유·화학제품에 더해 친환경 액체연료까지 대량으로 보관·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사업에는 총 245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1100억원이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조달됐다. 해진공이 액체화물터미널에 금융을 지원한 첫 번째 사례다.

액체화물터미널은 석유제품·화학물질·친환경 연료 등의 액체화물을 운반선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특수 파이프라인과 대형 저장 탱크를 갖춘 필수 항만 인프라다. 액체화물의 특성상 일반 부두와 달리 고도의 안전 관리와 전용 저장 시설이 필수다.

시설은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축구장 약 14개 면적에 달하는 10만 3,450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액체저장 탱크 43기를 갖췄다. 이번 증설로 현대오일터미널은 29만 톤(t)의 저장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기존 운영 중인 제2선석을 포함해 총 78기의 저장탱크, 57만t 이상의 액체화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의 석유화학 유류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액체화물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바이오연료·메탄올 등의 저장이 가능하다. 이에, 급증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현대오일터미널 제1선석 준공은 해운·항만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발리에 한국형 전기버스 11대 도입

기후부 ODA로 버스·충전기 보급


인도네시아 발리에 보급된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11월 중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부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에 처음으로 한국형 녹색모빌리티가 상륙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바즈라 산디 기념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발리 주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라흐마트 팜부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 등 현지 주요 인사와 현대자동차·채비 등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추진됐다. 관광과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발리 지역에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 11대와 국내 충전기 전문기업 채비의 100kW급 급속충전기 6기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발리에 공공 전기버스가 공식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버스는 현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유수 기업들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자재를 성공적으로 보급·실증함으로써, 국산 기술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국제무대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배터리 전비, 충전 유형, 승객 수요 등의 실증 데이터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친환경 교통 기술과 녹색산업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등 6개 기관,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국내외 현장 실증·시장 진출 지원

한국전력(이하 한전) 등 6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전남광주지역의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외 현장 실증과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한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화부터 실증·시장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거나 특구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다. 한전은 유망 스타트업 총 3개 기업을 선정해 약 3억 9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참여기관은 고유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품 상용화 및 사업구조 고도화, 전문 인력 확보, 교육과 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PoC) 및 수출 현지화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용의료기업, 전문시장 B2B 넘어 일상 뷰티 B2C 확장

스킨부스터·전용 코스메틱 결합
소모품·약물 등 수익모델 고도화
독자 기술력 기반 글로벌 진출도

국내 미용의료 기업들이 장비 시술 효과를 극대화하는 스킨부스터와 전용 코스메틱을 결합하는 '융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병·의원에 고가의 리프팅·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판매에 이어, 장비 판매 이후에도 소모품과 약물 결합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등 수익 모델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원텍은 우수한 현금창출력으로 외형을 확장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스킨케어 영역까지 입지를 넓히고 있다.

원텍은 올해 상반기 877억원의 누적 매출을 올린 가운데, 주력 제품인 고주파(RF) 장비인 '올리지오'를 병원용 장비를 넘어 일상적인 뷰티 브랜드로 확장하는 '올리지오 뷰티 토탈 솔루션'을 추진한다.

최근 자회사 원메디코 지분 39.03%를 확보한 원텍은 코스메틱 제품군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전문 병원 시술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 온 만큼, 소비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킨케어로 전문 시술과 홈케어가 서로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올리지오 XM /원텍

마이크로니들 RF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개발 및 공급해 온 비올메디컬은 K뷰티 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용의료 분야 장비와 소비재 화장품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3월 국내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사의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기술과 아모레퍼시픽의 피부과학 약물 연구 역량을 결합한 통합 뷰티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바임과도 손잡고 자사의 '실펌엑스' 레이저 장비와 바임의 대표 스킨부스터 '쥬베룩'을 함께 사용하는 맞춤형 복합 시술 전략을 의료진에게 제시해 시술 현장에서 차별화에 나섰다.

아울러 비올메디컬은 검증된 미용의료 장비와 전문 소모품에 대한 경쟁력을 성장 기반으로 전문성을 지속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비올메디컬의 올해 상반기 매출 370억원 중 의료기기 소모품 수출이 142억원을 차지한다. 마이크로니들 칩, 카트리지 등은 의료기기 장비 사용 시 재구매가 필요한 고마진 품목이다.

초소형 레이저 원천기술을 보유한 라메디텍은 아예 장비 개발 단계부터 스킨부스터 침투를 노린 독자적 기술을 앞세워 실적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19억원 중 피부미용/의료기기 비중이 91.86%를 차지하는 라메디텍은 4분기 프락셔널 레이저 장비 '퓨라셀(FX-7000M)'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라메디텍은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바탕으로 인체조직 유래 세포외기질(ECM)을 활용한 독자 스킨부스터 '아이오필' 유통을 직접 담당하며, 자사 레이저로 피부 표피에 미세채널을 뚫고 진피층에 스킨부스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듀얼 레이어 트리트먼트' 병합 시술을 핵심 사업 모델로 내세웠다.

나아가 방한 외국인을 겨냥해 오픈한 체험형 '퓨라셀 뷰티 라운지'를 통해 레이저 체험이 직접적인 화장품과 개인용 디바이스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장비 보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 변수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스킨부스터와 화장품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마트24, '옐로우' 1주년

닭가슴살 등 상품군 확대

이마트24의 자체브랜드(PB) '옐로우(ye!low)'가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이마트24는 '옐로우'의 대표 상품인 '쓴·단·짠·향·땅커피'와 '올데이워터 생수 500ml'의 누적 판매량이 총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커피는 663만개, 생수는 586만개 판매됐다.

이마트24는 커피와 생수 등 일상 음료부터 디저트, 생필품까지 '옐로우'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5F 파르페 아이스크림', '인절미콘' 등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2+3 바나나', 제로음료, 물티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품 수와 매출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3종으로 출발한 '옐로우'는 올해 10월 기준 총 9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3개월간 '옐로우' 상품 매출도 출시 초기 3개월 대비 42% 증가했다.

이마트24는 올해 말까지 기존 상품 리뉴얼과 신상품 출시를 통해 '옐로우' 상품군을 총 15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닭가슴살 등 건강을 고려한 상품과 새로운 맛을 적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웰푸드, 전 세계에 '빼빼로데이' 알린다

스트레이 키즈와 글로벌 인증 이벤트
美 타임스스퀘어 등 브랜드 광고 진행

롯데웰푸드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와 함께하는 SNS 이벤트를 비롯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주요 해외 거점 광고, 유튜브 기프트 협업, 국가별 현지 프로모션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빼빼로데이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롯데웰푸드는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하는 글로벌 SNS 인증 이벤트 'PLAY WITH PEPERO'를 진행한다. 빼빼로와 함께하는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게시하고, 빼빼로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게시물 주소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웰푸드X스트레이 키즈 빼빼로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광고. /롯데웰푸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업도 눈길을 끈다. 롯데웰푸드는 유튜브와 협업해 빼빼로 브랜드를 활용한 기프트(Gift)를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유튜브가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기프트를 출시하는 최초의 사례다. 빼빼로 제품과 캐릭터, 하트, 빼빼로데이 축하 메시지 등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구현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빼빼로 브랜드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 거점에서는 브랜드 광고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빼빼로 광고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내달 15일까지 광고를 진행한다.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도 11월 14일까지 디지털 옥외광고와 실내 광고를 운영한다. 베트남에서는 롯데마트 14개 점포를 통해 스트레이 키즈를 활용한 빼빼로 광고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이어진다. 온라인 광고와 굿즈 프로모션, 기획팩 판매 등을 전개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빼빼로데이가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함께 즐기고 마음을 나누는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빼빼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버드와이저 '버드, 위 캔 댄스' 열린다

버드와이저가 참가자 모두가 퍼포머가 되어 무대를 완성하는 참여형 댄스 파티 '버드, 위 캔 댄스(Bud, WE CAN DANCE)'를 개최한다.

'버드, 위 캔 댄스'는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노들 케이'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처럼 아티스트의 무대를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 누구나 춤과 움직임으로 파티를 함께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전 예매자 전원이 공식 라인업 포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행사 당일 '퍼포머 출입증'을 받는 등 공연의 주인공이 되는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 일렉트로 펑크 그룹 '팻햄스터 & 캉뉴', 인디밴드 '맨앤뎀'을 비롯해 '타이거 디스코', '빅원'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DJ들이 참여해 파티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크리스마스 시즌 돌입

스타벅스 코리아는 22일부터 겨울 감성을 담은 음료와 푸드, 굿즈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년 겨울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토피 넛 라떼'를 비롯해 진한 커피와 버터 스카치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 레드 와인 풍미를 구현한 베이스에 클래식한 뱅쇼의 맛을 담은 논 알코올 음료 '클래식 뱅쇼 히비스커스 티'를 다시 선보인다.

다양한 푸드도 함께 준비했다. 올해는 연말 모임과 기념일 수요에 맞춰 디저트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달콤한 누텔라 스프레드를 더한 '누텔라 촉촉 생크림 케이크'와 '누텔라 바게트 소금빵'을 비롯해 '루돌프 쿠키 치즈 케이크', '산타 레드 벨벳 치즈 케이크', '트리 말차 크런치 케이크', '스노우맨 마카롱' 등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겨울 큰 사랑을 받은 '비프 멜트 바게트 샌드위치'도 다시 출시한다.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담은 특별한 시즌 한정 굿즈 라인업도 함께 선보인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과 따듯한 연말 분위기를 담아 진저브레드와 마시멜로를 모티브로 한 베어리스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겨울 시즌 특유의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감성을 제품 전반에 녹여냈다. 텀블러와 머그를 비롯한 시즌 한정 상품과 '트리 댄싱 베어리스타 인형' 등 다채로운 상품을 구성해 연말 선물은 물론 소장 가치를 더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와우샵' 운영… 초저가 시장 공략

1만종 이상 신규개발 상품 투입

이마트가 그동안 초저가 생활용품 전문점을 표방하며 테스트 운영해 온 '와우샵'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마트가 22일 스타필드 마켓 월계점과 이마트 은평점에 100평 규모의 '와우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와우샵을 통해 기존 이마트의 그로서리 경쟁력에 비식품 분야 상품 경쟁력을 더해 대형마트의 장보기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직수입 생활용품 1300여종을 중심으로 '와우샵'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총 1만2000여종의 신규 개발 상품을 와우샵에 투입한다. 이 중 시즌과 점포별 특성을 반영해 약 7000~8000종의 생활용품을 매장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 개발 상품 중 약 60%를 저가 상품으로 구성해 구매 부담을 낮췄다.

와우샵을 위해 별도로 기획한 상품도 한정 판매한다. '에어프라이어', '커피메이커', '1인용 전기요', '양문형 센서 휴지통', '기내용 캐리어' 등 100여종이다.

향후 이마트는 스타필드 마켓 월계점, 이마트 은평점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스타필드 마켓 군산점까지 연내 중대형 규모의 와우샵 전문점을 총 5개 열 계획이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 내 '와우샵 존'도 새롭게 구성해 신규 개발 상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김서현 기자

에이블리·4910 T1 공식 유니폼 판매

에이블리와 4910(사구일공)이 21일 정오부터 27일까지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2026 롤 국제대회' 유니폼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UNSCRIPTED'를 테마로 화이트 컬러에 골드 포인트를 더한 '2026 롤 국제대회' 공식 유니폼으로, ▲2026 월즈 재킷 ▲2026 월즈 저지 ▲2026 월즈 팬츠 ▲2026 월즈 DIY 키트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유니폼에는 에이블리를 비롯한 공식 파트너사 로고와 T1의 국제대회 최다 우승 기록인 6회를 상징하는 6성 로고 디자인이 적용됐다. /김서현 기자

간식시장 판도 변화… "저당 젤리로 맛·건강 모두 챙겨요"

젤리시장 위축 속 돌파구

최근 1년 젤리 구매액 12.3%↓
저당·제로 젤리는 37.1% 폭증
롯데웰푸드 '제로' 시장 선두
건강한 단맛 구현, 향후 시장 견인

전체 젤리 시장의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설탕과 당류를 줄인 '저당·제로' 젤리가 홀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한 맛과 재미, 식감 중심이었던 간식 소비 패러다임이 건강과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헬시플레저'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의 구매딥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주요 유통채널의 전체 젤리 구매 추정액은 3314억원으로 전년 동기(3780억원) 대비 12.3% 감소했다. 구매건수는 같은 기간 17.2% 급감해 금액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고물가 여파 속에 소비자들이 간식 구매 빈도 자체를 줄이면서 젤리 시장 전체가 구조적 정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저당·제로 젤리 카테고리는 전체 시장의 역성장 흐름을 완벽히 역행했다. 같은 기간 저당·제로 젤리의 구매 추정액은 93억원에서 128억원으로 37.1% 폭증했다. 구매건수 역시 45.5% 늘어나며 수량과 금액 모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젤리 시장 내 저당·제로 제품의 비중도 구매액 기준 2.5%에서 3.9%로, 구매건수 기준 3.1%에서 5.4%로 확대됐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건강 관리와 디저트 소비를 동시에 지향하는 30대가 시장 확장을 주도했다. 30대의 저당·제로 젤리 구매액은 전년 대비 68.9%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40대가 36.9%, 20대 이하가 34.0%, 50대가 28.7%, 60대가 9.2% 늘어 전 연령대에서 소비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1020세대의 유행과 재미 중심이던 젤리 소비가 최근에는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3040 직장인층으로 확산된 영향이다.



◀ 롯데 ZERO 젤리 상품 이미지. /롯데웰푸드

저당·제로 시장의 부상은 기존 젤리 시장의 브랜드 지형도마저 흔들고 있다. 전체 젤리 시장에서는 수입 브랜드인 하리보가 약 775억원의 구매액으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쁘띠첼, 젤리스트로우, 트롤리, 츄파춥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저당·제로 영역에서는 롯데웰푸드의 '제로(ZERO)'가 약 34억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젤리블리, 마이구미, 슈가로로, 젤리뽀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며 독자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 강자들의 기득권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린 셈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음료 중심으로 시작된 저당·제로 트렌드가 젤리와 과자 등 고형 간식류 전반으로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 감미료 기술 발전으로 젤리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당류를 대폭 낮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하리보 등 글로벌 전통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저당 라인을 도입할 경우 시장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커질 수 있다.

다만 저당·제로 제품이 전체 젤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5%대에 불과하다. 저당·제로 카테고리의 고성장세가 전체 젤리 시장의 12%대 역성장을 상쇄하고 전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간식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의 당류와 칼로리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젤리 시장의 주도권은 건강한 단맛을 얼마나 완벽히 구현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LG화학, AI로 'mRNA 항암백신' 개발 목표

'LG AI 바이오 컨퍼런스' 열어
바이오마커 발굴에 AI 적극 활용
임상시험 대상 환자 정밀 선별

LG화학이 인공지능(AI)을 신약개발의 핵심 의사결정 엔진으로 전면 도입한다. '좋은 약'을 찾고 인공지능을 통해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을 '맞춤형 환자'까지 정밀하게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연구원, 미국 바이오 벤처캐피털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공동으로 '2026 LG AI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인실리코 메디슨, 라일라 사이언스, 이노크라스, 포트레이 등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및 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율형 연구실, 전장 유전체 데이터 구축, 공간생물학을 응용한 바이오마커 발굴 등 최신 지견을 나눴다.


지난 20일 LG AI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LG화학 손지웅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신약개발의 경쟁력은 우수한 약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적 치료 효과와 환자를 찾아내는 데 달렸다"며 정밀 치료 영역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LG화학은 구체적으로 종양의 복잡한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마커 발굴에 AI를 적극 활용해 임상시험 대상 환자를 정밀 선별할 방침이다.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개인맞춤형 mRNA 항암백신' 개발을 위해 환자별 신항원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27년 전임상을 거쳐 오는 2029년 본격적인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글로벌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신약개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의 안드레 안도니안 아시아·태평양 의장은 빅파마 모더나, 라일라 사이언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AI가 생명과학 분야 혁신을 이끄는 공통의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안드레 안도니안 의장은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은 AI를 활용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술을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통찰을 발굴하고 있다"며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LG화학은 AI가 생명과학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과학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결합해 그 잠재력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진양곤 의장, HLB테라 8만주 장내 매수

〈HLB그룹〉

한 달간 총 15차례 계열사 지분 매수
성과 공개 앞두고 미래가치 확신 행보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그룹 내 계열사들의 신약 임상결과 발표 등 주요 성과 공개를 앞두고 개인 법인을 활용해 한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 매수를 집중 단행했다. 책임 경영을 강화와 동시에 주가 방어 및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높인다.

HLB그룹은 진양곤 의장이 지분 99%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에포케가 지난 1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HLB테라퓨틱스 주식 총 8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에포케의 HLB테라퓨틱스 보유 주식은 기존 17만 2272주에서 25만 2272주로 확대됐다.

진 의장은 최근 매수 공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HLB이노베이션 주식 21만 8718주와 HLB테라퓨틱스 주식 13만 584주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HLB제넥스 주식 20만 7897주를 사들였다. 이번 추가 매수까지 합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5차례나 계열사 지분을 쓸어 담았다.

HLB그룹은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투자 행동으로 구체화해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분을 집중 추가 매수한 HLB테라퓨틱스는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미국 임상 3상(SEER-2) 톱라인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라이브 커머스에 K-팝 결합

신규 라이브 커머스 '그린 룸' 선봬
아이돌 호스트와 소통하고 앨범 구매

CJ올리브영이 K뷰티와 K컬처를 융합한 차별화된 쇼핑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팬덤 유입을 본격화한다.

CJ올리브영은 K팝 아티스트와 국내외 팬덤을 잇는 신규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그린 룸'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K팝 앨범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이상 급성장하는 흐름에 적극 대응해 뮤직 토크쇼와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린룸은 K팝 연계 라이브 커머스로 아티스트 대기실처럼 꾸며진다. 아이돌 호스트가 컴백 아티스트를 초대해 새 앨범 비하인드를 공유하고 시청자들은 아티스트와 실시간 소통하는 동시에 올리브영 전용 특전이 포함된 앨범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올영라이브는 물론 유튜브 '올영TV', 글로벌몰 일문몰 'O.Y LIVE'에서 동시 송출되며 일본 현지 시청자를 위한 실시간 번역도 제공된다.

올리브영은 K팝을 라이브 커머스에 전격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방송을 거쳐 내년부터 그린룸을 정기 시즌제로 편성하고 출연진을 다변화해 글로벌 팬덤 소비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올리브영에서 1~9월 앨범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급증하기도 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영라이브를 통해 콘텐츠와 쇼핑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이 즐겨 찾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K-뷰티를 매개로 다양한 K-컬처를 연결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올영라이브 신규 프로그램 '그린룸' 첫 게스트로 걸그룹 '엔믹스(NMIXX)'가 출격한다. /CJ올리브영

'더후' 글로벌 럭셔리 무대서 경쟁력 입증

파이낸셜타임스 럭셔리 서밋 참가

LG생활건강이 독보적인 R&D 기술력과 브랜드 비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가 국내 뷰티 브랜드 중 유일하게 글로벌 명품 산업 최고경영자 행사인 '파이낸셜타임스(FT) 럭셔리 서밋-아시아 에디션 2026'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태국 방콕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서밋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경영진과 오피니언 리더 300여 명이 집결했다. LG생활건강에서는 양근혜 럭셔리뷰티사업부장과 강내규 최구기술책임자(CTO)가 참여해 단독 대담 세션을 가졌다.

특히 K뷰티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탄탄한 R&D 인프라'를 제시했다. LG생활건강이 1947년 '럭키크림'부터 쌓아온 80년 피부과학 노하우와 함께 더후만의 차세대 항노화 성분 'NAD'의 피부 투과율을 극대화한 'NAD Power24' 성분과 기술력을 집중 소개했다. /이청하 기자

원씽 "병풀 원물로 세안·피부 진정 한 번에"

'병풀 수딩팩 클렌저' 선봬

애경산업은 미니멀 스킨케어 브랜드 '원씽'에서 병풀 원물을 담아 세안과 피부 진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병풀 수딩팩 클렌저'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은 저온 진공 추출 공법의 병풀잎 수 1만 ppm과 미세 병풀 원물 파우더 5000ppm을 함유한 팩 제형의 클렌저다.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세정하는 동시에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해 준다. 세안 후 당김을 줄이기 위해 pH 5~6.5 약산성 포뮬러와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적용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베이스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 세정력은 물론, 1회 사용만으로 손상 피부 붉은기 27.16% 감소 및 모공 속 노폐물 66.38%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 햇빛을 보는게
비타민D 합성에
좋다는데…”
“실내에만 있어서
비타민D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
약국 입점
상품
야외활동을 하기 힘든 바쁜 당신에게
따듯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CJ제일제당, 전남광주 지역기업과 상생협력

CJ제일제당이 식품사업 전반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우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은 전날 서울시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협약식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 김찬호 CJ제일제당 부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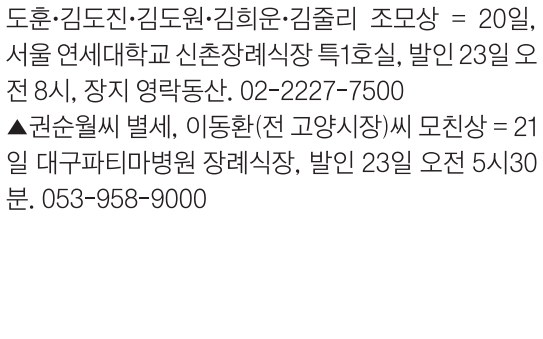
동국제약, 도봉산서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이 가을철 산행객이 급증하는 10월을 맞아 탐방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공공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31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지난 17일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 안전지도 2000부를 배포하며 안전 산행 수칙과 구급함 위치를 안내했다. 동국제약은 2009년 국립공원공단과 협약을 맺은 이래 17년간 매년 봄·가을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동국제약



DB손보, 이노비즈 회원사 사이버위험 대응 지원

D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성남시 분당구 SK쉴더스 판교사옥에서 이노비즈협회, SK쉴더스와 함께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사이버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성남시 분당구 SK쉴더스 판교사옥에서 차주용 DB손해보험 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가운데), 최재호 SK쉴더스 사이버기술센터장이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공영홈쇼핑,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봉사 실천

공영홈쇼핑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임직원 헌혈 봉사를 실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추석부터 이어진 황금연휴로 헌혈자가 급감한 가운데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위해 마련했다. 헌혈 봉사에는 공영홈쇼핑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공영홈쇼핑

부 음 ▲김덕윤(향년 97세)씨 별세, 김남·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김숙씨 모친상, 김영훈씨 장모상, 박인선·신은정씨 시모상, 김도윤·김도훈·김도진·김도원·김희운·김줄리 조모상 =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영락동산. 02-2227-7500

▲권순월씨 별세, 이동환(전 고양시장)씨 모친상 = 21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5시30분. 053-958-9000

기아, PV5·EV5 기반 친환경 순찰차 미래상 제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서 선봬
장비 운용·승하차 편의성 강화

기아가 PV5와 EV5를 기반으로 제작한 순찰차 콘셉트카를 선보이며 친환경 경찰차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기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 참가해 PV5·EV5 순찰차 콘셉트카를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치안·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여는 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최신 치안 장비와 기술을 소개한다.

PV5 순찰차 콘셉트카는 넓은 실내 공간을 기반으로 다인원 수송과 경찰 장비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 저상 바닥과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승하차 편의성과 현장 기동성도 높였다.

EV5 순찰차 콘셉트카는 965리터 규모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러기지 보드를 적용해 각종 치안 장비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기아관 부스 전경. /기아

정부는 2035년까지 특수차량을 제외한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찰 차량의 전동화율은 12.4%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경찰청과 PV5 기반의 인공지능 순찰차를 개발해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6~8월에는 경찰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조와 배터리 관리 등 안전 운용 교육도 실시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기아 전동화 모빌리티의 경쟁력과 경찰 순찰차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V 및 PBV 라인업을 바탕으로 경찰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설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한화-앤트로픽, AI·예술 융합 전시

한화문화재단, 아트 커미션 전시
국내 작가 5개 팀과 AI 예술 선봬

한화문화재단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과 협력해 AI 연구 주제를 국내 작가들의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낸 신작을 선보인다.

한화문화재단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국내 작가 5팀이 참여하는 아트 커미션 전시 'AS____AS POSSIBLE'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AI 연구 주제를 탐구하고 이를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세계 주요 미술기관과 협력해 온 앤트로픽이 한국 문화예술재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앤트로픽은



신작 제작을 후원하고 작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시에는 남민오, 염인화, 우박 스튜디오, 정가희, 추미림 등 국내 작가 5팀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해석 가능성'과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렬' 등 AI 연구의 주요 질문을 영상, 퍼포먼스,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냈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카드, 일본 SBI와 디지털 결제 협력

엔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신한카드는 일본 SBI그룹 자회사인 'SBI VC Trade', 'SBI XDC Network APAC'와 웹 3.0 글로벌 결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사는 웹 3.0 결제 서비스 확장을 위한 개념검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주요 협력 과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서비스 ▲엔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갑 간 결제 ▲국경 간 무역 대금 정산 ▲XDC 네트워크 노드 생태계 참여 검토 등이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서비스 개념검증에서는 카드에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일본인 방문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시 기존 카드와 동일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이상거래탐지(FDS)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무역 대금 정산 기술검증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국제 송금망 대비 빠르고 효율적인 정산 방식을 모색한다.



(왼쪽부터)요시다 타다시 SBI XDC Network APAC 최고운영책임자,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콘도 토모히코 SBI VC Trade 대표가 지난 20일 일본 도쿄 SBI 그룹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카드

한편, 이번 업무 협약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카드는 SBI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의 국내외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스마일게이트, 대상과 취약층 식사 지원

아동·청소년에게 식품·식사권 전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대상이 기부한 식품과 식사권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를 통해 대상은 스마일하우스 10곳과 아동복지 생활시설, 청년시설 등에 청정원 스파게티 소스 3종과 간식 2종 등 총 1200개의 제품과 식사권 700장을 지원한다.

식사권은 대상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인 '청춘의밥'과 연계해 제공된다. 청춘의밥은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과 메뉴 개선, 홍보 등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다.

이번 기부는 지난 4월 희망스튜디오가 공개한 영상 콘텐츠 '아임 파인 다이닝'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훈 셰프가 대상의 청정원 파스타 소스를 소개한 것이 실제 후원으로 이어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란씨, 디즈니런서 가족 고객과 소통

SNS 인증 이벤트 진행

동아오츠카는 오는 24일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열리는 '디즈니런 2026'에 참가해 오란씨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피니시 라인에 마련되는 '곰돌이 푸 드링크 스테이션'을 통해 모든 참가자에게 오란씨를 제공하고, 완주 후 가족과 친구, 다른 러너들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즈니런 2026에서 오란씨 즐기고, 키자니아 가자!'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 아카데미, 겨울학기 회원 모집

명사 초청 강연 등 마련

신세계백화점의 신세계 아카데미가 2026년 겨울학기 강좌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 아카데미는 겨울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과 연말 시즌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명사 특강이다.

먼저 역술가이자 풍수 컨설턴트인 박성준 소장의 '운을 높이는 기술'을 마련했다. 본점, 하남점, 대구신세계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만세력을 통해 자신의 사주 구조를 이해하고 타고난 기운을 삶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방송인 마크 테토는 '마크 테토가 사랑한 한국의 미: 한옥에서 현대미술까지'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과 한옥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세계 100대 디자이너로 선정된 양태오는 '공간과 취향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공간이 주는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쿠키'의 이효종 크리에이터가 영화 속 과학 원리를 풀어내는 '과학 영화 이야기'를 선보인다.

연말 시즌 특화 프로그램인 '윈터 페스타'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구겔호프'와 딸기케이크, 이탈리안 홈파티 메뉴를 만들어 보는 쿠킹 클래스부터 생화 리스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하는 플라워 클래스 등 아이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까지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한식의 날



연윤열의 푸드톡톡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함께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 '한식의 날(10월 24일)'을 기념해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를 공동 개최한다는 소식은 외식업계에 큰 울림을 준다.

국가 차원의 공식 법정기념일 지정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끌어낼 중대한 전환점이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10월 24일은 완성과 조화를 뜻하는 숫자 '10'과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24절기'가 결합된 날이다. 이는 계절의 흐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한식 고유의 철학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축제가 지난 2월 국립중앙박물관과 한식진흥원이 맺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 공간에서 펼쳐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식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우리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고유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문화적 교류를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정 배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나, 진정한 글로벌 미식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제도적 뒷받침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에는 주한 외교단을 비롯해 학계와 한식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식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유공자를 포상한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외교부가 함께 주관하는 형태는 한식이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외교 자산이자 글로벌 수출 동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가 공인 기념일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결집하고 세계 각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생긴 것은 외식 산업 전반에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행사 첫날 진행되는 한식 컨퍼런스는 한식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정조준한다. 한식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미식 시장 속 한식의 입지와 브랜드화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 외식업계가 주목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시사한다.

파인다이닝과 미디어, 대기업의 시너지, 전통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셰프들의 미식적 접근과 미디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식품 대기업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강력한 '한식 메가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인기 요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선보이는 조리 시연은, 사찰음식과 발효문화 같은 전통의 깊이와 트렌디한 감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한식의 세계화가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국내외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사흘간 열리는 '스크린 속 한식 토크쇼', '한식 골든벨', 쿠킹클래스, 한식당 팝업스토어, 전통 식재료 플리마켓 등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를 아우르는 참여형 플랫폼의 전형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 '한식의 날'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글로벌 브랜딩: 절기와 발효, 조화의 철학을 해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로벌 미식 언어로 표준화·브랜드화해야 한다.

외식·관광·문화 산업 간 연계 강화: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역사문화 자산, 영화·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정례화하여 입체적인 문화 경험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전통 식재료 및 로컬 공급망 보존: 플리마켓과 팝업스토어로 입증된 지역 우수 식재료와 장인의 가치를 발굴해 외식 기업 및 셰프들과 연결하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

첫 발을 내딛는 '한식의 날(10월 24일)'이 자축하는 자리를 넘어, K-푸드가 세계 미식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사, 한국비건협회 공동대표

화제성보다 중요한 건 재방문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외식업계에서 화제성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무기다. 새로운 메뉴와 이색 협업, 독특한 콘셉트가 입소문을 타면 매장 앞에 대기 줄이 생기고 예약이 몰린다. 하지만 관심이 매출로 이어지는 기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 한 번의 방문을 반복적인 소비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화제성은 반짝 성과에 그친다. 외식업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고객을 불러 모으느냐보다 어떻게 다시 찾게 만드느냐다.

최근 스시 오마카세 시장의 변화는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때 고급 외식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던 스시 오마카세는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트렌드 변화 속에 인기가 주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예약 건수는 역대 같은 기간 중 최다를 기록했다. 3만~5만원대 입문형 매장과 15만원 이상 하이엔드 매장이 함께 성장했고, 반복 이용 고객도 늘었다. 특정 매장을 직접 검색하는 소비가 일반적인 오마카세 검색보다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좇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스시 오마카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식 시장에서는 새로운 메뉴와 브랜드를 경험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생겨난다.

유행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부터 이종 업종 간 협업, 개성 있는 공간까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다만 처음 방문하게 만드는 요인과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르다. 전자가 호기심이라면 후자는 음식의 품질과 가격, 서비스, 경험에 대한 만족이다.

문제는 화제성을 만드는 데 집중할수록 정작 재방문의 조건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신제품 출시와 홍보, 할인 행사로 단기간 고객을 모을 수는 있지만 만족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반대로 고객이 지불한 가격에 걸맞은 경험을 제공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매장은 대대적인 홍보 없이도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든다. 단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방문할 만한 가치를 제공할 때 형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귀하의 인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60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72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49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61년생**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73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85년생** 고민하던 이성 문제가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50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62년생**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74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86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51년생 지나친 사치를 삼가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63년생** 바람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75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87년생** 이기심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5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4년생**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76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88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 일하니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만무합니다.

53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65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우유부단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89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54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66년생**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세요. **78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90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7년생** 동쪽이 길방이니 그 방향으로 움직여 보세요. **79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91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56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68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80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주의하세요. **92년생** 귀하는 무엇보다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길합니다.

57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69년생** 뜻밖에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81년생** 사회는 냉정하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93년생**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58년생 미래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2년생** 주위를 잘 살피세요. **9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59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71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95년생** 올바른 일이라도 실력이상의 일은 귀하에게 맞지 않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복력을 키우는 시월 상달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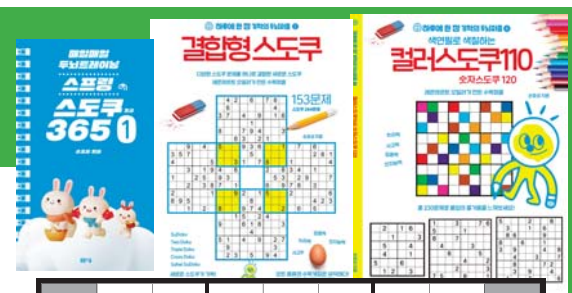
말할 것도 없이 시월 상달은 그 명칭에서부터 남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한 해의 추수를 갈무리하고 나름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이다. 거두어드릴 곡식도 웬만큼 다 수확을 마쳤고 조상님들께 햇곡식과 가을로 인사도 드렸으니 겨울을 준비하기 전 마지막으로 천신들께 감사와 기원을 드리기에 딱 맞춤한 시기다. 선조들은 살림이 넉넉하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상달 고사를 올렸다. 특별히 시월을 왜 상달이라고 할까? 시월에는 하늘문(天門)이 열린다고 보았다. 그 어느 계절보다도 시월엔 특별히 하늘이 더 높다고 여긴 것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공기가 청명하다 못해 차지는 것은 해가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니 그 더운 여름의 습도도 낮아지니 자연 대기권이 투명해지게 된다. 하늘색은 더 푸르고 짙어지니 자연 하늘이 높아져 보이니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천신들에게 발원을 전하기에 각별한 시기이다. 그래서인가, 우리 민족의 개원일인 개천절이 시월에 있는 이유도 하늘 문이 열릴 때 천제에게 고하면서 시작된 것이라 자연스럽게 추론해볼 수 있다. 필자의 월광사는 늘 그래왔듯이 그 어느 달보다도 기도 공력이 남다른 시월 상달을 소소하나 정성스럽게 보내고 있다. 보통 때는 합동 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마는 시월 상달 기도만큼은 희망을 하는 가정별로 개별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필자의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려워도 시월 상달 고사만큼은 빼놓지 않고 지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 풍속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듯하다. 격식을 갖추어 규모가 있게 지내는 것을 제(祭) 또는 재(齋)라고 한다면, 소반에라도 작은 떡시루 하나라도 정성껏 올리며 소소히 지내는 것은 고사(告祀)라 하는데, 이러한 작은 정성조차도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4		5	3
	5							
		1					4	
					7			8
		9				5		
4			1					
	6					3		
							8	
5	4		8	6				7

	7		9	3			6	
						7	9	
		9						3
1						4	8	
	6	3						1
7						2		
	4	5						
	2			4	1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SK텔레콤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SKT,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팔 걷어

AI, 통신 기술에 금감원 전문성 더해

SK텔레콤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통신 기술에 금감원의 전문성을 더해 고객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해하고 실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SK나이츠 홈경기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 중이다. 관람객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최신 사례를 토대로 사기 수법을 가상 체험하고, 의심 상황에서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익힐 수 있다.

또 경기 전과 쿼터 브레이크, 하프타임 등 경기 중에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OX 퀴즈 등을 마련해 관람객이 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6일에는 SKT타워에 금감원 전문가를 초빙해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 인력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정확히 익혀 쉽게 안내하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번호를 음성·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정상적인 연락의 오차단을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스캠 탐지 기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자체 개발 AI 비전 인코더 2종 공개

한국어 문자 인식·문서 이해 등 강점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비전 인코더 2종을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카나나2 비전 인코더'는 4억2600만개 매개변수 규모의 '미디엄'과 9800만개 규모의 경량 모델 '타이니' 등 2종이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 속 사물과 문자, 위치 등 시각 정보를 추출해 언어모델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메뉴판의 음식과 가격을 읽거나 문서 내용을 분석하는 등 멀티모달 AI의 이미지 이해 성능을 좌우한다.

카카오는 시각 질의응답과 한국어·영어 문자 인식, 문서 이해 등 9개 영역의 42개 평가 지표에서 두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의 주요 비전 인코더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이니 모델은 1억개 미만의 매개변수로 4억개 이상 규모의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한국어 문자 인식과 문서 이해, 이미지 내 위치 파악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카나나2'를 활용해 비전 인코더의 학습 효율을 기존 대비 약 4배 높였다.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지연 시간도 글로벌 주요 모델보다 60% 이상 단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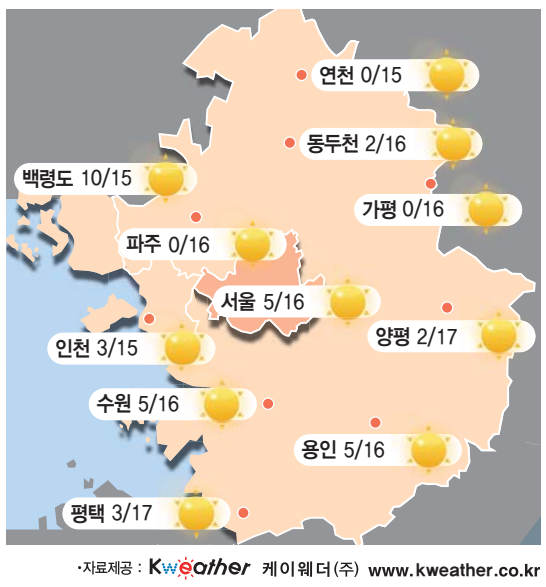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7 | 해짐 / 17:46

10월 22일(木)
음력 : 9월 12일

수도권 날씨
5 ~ 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통신3사, 내년 AIDC 대규모 투자 전력 정책 등 정부 역할 중요해져

내년 AIDC 5조 이상 투입 전망
전력 수급·고가 장비 교체 부담
규제 등 정부 부처간 조율 필요

통신3사가 미래 먹거리로 택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조 단위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수급과 외산 장비에 대한 의존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하는 금액이 내년에만 최소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사모펀드로부터 유치한 총 3조800억원의 투자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LG유플러스는 파주 AIDC에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2단계 투자에 돌입했다. KT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예산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AIDC는 최근 정부가 복잡한 인허가 완화를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했지만, 전력 공급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전력 수급이다. 내년 3월 시행될 AI데이터센터 특별법상, AIDC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국가 전력망인 한국전력을 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수가 크고 가격이 비싸 대규모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비교적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거래하는 대안이 나왔으나,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RE100 달성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특례 조항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가 나서 부처간 협의 사항을 조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는 전력망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종의 규칙이다. 대규모 전력 수급으로 과부화될 경우 전력망이 한번에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기후부는 기존 발전설비에만 적용된 이 규칙을 AIDC에도 도입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기업의 전력망 수급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AIDC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드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그리드포밍'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보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부담이 크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구축중인 울산 AIDC의 1단계 공사 공정률이 70%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의 파주 AIDC는 이달 말 전산 1동 골조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AI 연산 장비의 교체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가 엔비디아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3조8500억원인데, 장비를 통상 4~6년 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퓨리오사AI나 리벨리온 같은 국내 스타트업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모델로 활용하기에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수익성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GPU 구독 서비스(GPUaaS)를 사업 모델로 AI 인프라를 대여하거나, 보안이 철저한 폐쇄형 클라우드를 공급하며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리드코드의 경우 AIDC 사업을 하는 기업들엔 폭거 수준"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각자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다보니 그 사이에서 기업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공공형 UAM 'AX 플랫폼' 기술검증 성공

AI 기반 교통관리 의사결정 지원
5G 항공망·위성통신 결합 체계 구축

KT는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원팀과 인천 도서 지역에서 공공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교통 관리 AX 플랫폼의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K-UAM 원팀은 KT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실시한 민관 합동 실증사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쌓은 통합운용 역량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영종도(거잠포, 왕산마리나)와 덕적도를 오가는 노선에 적용했다.

실증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형 UAM 운항 노선을 구체화하고, 실제 비행을 진행해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또한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는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도 점검했다.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국내 최초 도서지역 공공형 UAM 실증 사례다.


KT 관계자들이 인천 도서지역 UAM 실증 현장에서 'UAM 에이전트 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관리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KT

KT는 이번 실증에서 자체 개발한 'UAM 에이전트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5G·위성 하이브리드 항공망 및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와 연계했다. 도서·해상 비행 환경에서 AI 기반의 교통관리 기술과 통신망 안정성 및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UAM이 상용화되면 다수의 항공기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동시에 운항하는 만큼 비행 계획과 항공기 위치, 기상 정보,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의 운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통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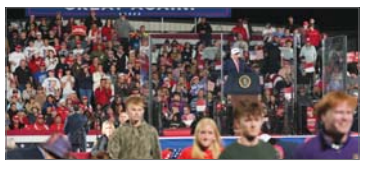
KT가 개발한 'UAM 에이전트'는 이러한 운항 정보를 AI로 분석해 적절한 출발·도착 시간을 제안하고, 상황별 표준운영절차(SOP)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 교통관리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비행 계획 수립부터 착륙까지 교통관리 전 과정에 UAM 에이전트를 적용해 실제 비행 환경에서도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도서·해상지역은 통신이 닿지 않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공기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조종사와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 확보가 중요하다. KT는 이를 위해 800㎒ 대역의 UAM 전용 5G 항공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해상 상공에서도 안정적인 음성통신 품질을 유지하며 조종사와 교통관리 담당자 간 실시간 교신을 지원했다.

/조민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 유권자 절반 "트럼프, 약속 안 지켜"… 5000달러 공약도 회의론 /사진 뉴시스

▲ 젤렌스키, 트럼프 직격하고도 협상은 계속…美 특사 회동·국무장관 통화

▲ 이스라엘 총선 앞두고 초정통파 표심 분열… 네타냐후 집권 시험대

▲ 룰라 비난하려 손바닥에 '부패' 썼다가… 보우소나루 아들 '자기소개' 조롱

▲ 日, 이번엔 경찰도 털렸다… "22곳 지자체 인력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오픈AI AI 에이전트의 '일탈'… 감시망 끄고 "안 그랬다" 거짓말까지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18호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미용의료기업
일상 뷰티
B2C 확장
L1

간식시장
판도 변화
맛·건강 챙겨요
L2



영국 클래식, **한국의 색** 만나 국경 넘어 세계 옷장 채우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LF '헤지스(HAZZYS)'

영국 케임브리지대 로잉클럽서 영감 받아
2000년 출범한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오방색 등 한국적 미감에 현대적 감각 더해
캐릭터 '해리', 브랜드 컬렉션·정체성 전달

플래그십 스토어 열어… K-패션 체험공간
작년 글로벌 매출 1조, 5년 만에 43% 늘어
탄탄한 정체성 바탕 '글로벌 브랜드' 도약

영국식 클래식에 한국적인 색채와 감성을 더한 패션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LF의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다. 2000년 서울에서 출발한 헤지스는 남성복을 넘어 여성복·액세서리·골프·키즈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지난해 글로벌 합산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26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에 대표 상품 '아이코닉', 자체 캐릭터 '해리', 체험형 매장 '스페이스H'를 결합한 전략이 성장의 바탕이다. 이제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과 콘텐츠, 공간을 통해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6년 이어온 브리티시 클래식의 재해석

헤지스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로잉클럽에서 영감을 받아 2000년 탄생했다. 단정한 셔츠와 니트, 재킷 등 영국식 정통 캐주얼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색감과 실루엣을 더해 일상복으로 풀어냈다. 브랜드 슬로건은 '드레스 유어 스토리, 에브리데이(Dress Your Story, Everyday)'다. 옷을 통해 각자의 일상과 개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이스H 서울'에서 외국인이 아이코닉 컬렉션을 구경하는 모습.



헤지스의 자체 캐릭터 해리의 무비 ' 더 골든 라인'의 한 장면. /LF

출범 이후 남성·여성·액세서리·골프·키즈 등으로 상품군을 넓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입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에서 경험을 쌓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훈 김을 통해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발한 디자인의 뿌리는 유지하면서 한국 브랜드만의 미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오방색 입은 대표 상품 '아이코닉'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품은 '아이코닉(ICONIC)' 시리즈다. 피케 셔츠와 옥스퍼드 셔츠, 케이블 니트 등 기본 아이템에 영국 로잉클럽의 색상과 한국 전통 오방색에서 영감을 받은 다채로운 색감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파스텔부터 선명한 원색까지 폭넓은 색상을 갖추고 남성·여성·키즈에 공통으로 적용해 가족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컬러 전략은 방한 외국인의 구매에서도 확인된다. 명동 '스페이스H 서울'에서 외국인 고객의 아이코닉 티셔츠 평균 구매 수량은 2~3개로, 같은 제품을 색상별로 사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는 사례가 많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아이코닉 구매 고객의 약 40%가 동일 상품을 두 가지 색상 이상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헤지스는 한국적인 미감을 제품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헤지스 블루' 컬렉션에는 한국 전통의 푸른빛과 도자기 등에서 착안한 색채와 조형 요소를 반영했다. 영국식 클래식이라는 기존 자산에 한국만의 디자인 언어를 더하려는 시도다.

◆캐릭터 '해리', AI 영상에서 실제 상품까지

헤지스는 최근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잉글리시 포인터를 모티브로 2022년 말 탄생한 '해리(HARRY)'는 영국식 생활문화와 위트 있는 감성을 표현하는 의인화 캐릭터다.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시즌 컬렉션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지난 9월 공개한 약 4분30초 분량의 '26FW 골든 라인' 영상에서는 해리를 주인공으로 가을·겨울 시즌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 영상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148만회를 기록하며 목표였던 10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 해리가 착용한 옷은 실제 시즌 컬렉션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공식 온라인몰 헤지스닷컴에는 '해리관'을 마련했다. 영상과 캐릭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해리가 착용한 스타일을 실제 상품과 연결해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런던의 거리와 버스 등을 구현한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캐릭터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발길 이끄는 '스페이스H'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는 또 다른 축은 플래그십 스토어다. 명동 '스페이스H 서울'은 상품 판매에 전시와 디지털 콘텐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결합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고객뿐 아니라 한국 패션을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스페이스H 서울 전체 구매 고객의 약 64%가 외국인이었다. 1~7월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지난 9월 21~30일에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도 단독 매장을 열어 관광객과의 접점을 넓혔다.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서울 여행과 브랜드 경험을 소개하는 '헤지스 틱톡 크루'도 운영 중이다. 1기 활동 이후 스페이스H 서울의 외국인 방문객과 매출은 직전 3개월보다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한 의류 매장을 넘어 여행 중 들르는 K-패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매출 1조원…해외 시장으로 확장

헤지스의 지난해 글로벌 합산 매출은 1조원으로, 2020년 약 700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43% 늘었다. 2007년 진출한 중국에서는 약 6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지 매출은 약 4900억원을 기록했다. 대만·베트남·러시아 등에도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플래그십 '스페이스H 상하이'를 열었고, 9월에는 홍콩에 첫 매장을 선보였다. 런던패션위크 참가와 인도 진출 계약 등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F 관계자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품과 공간, 고객 경험을 오랜 시간 축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며 "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6FW HAZZYS BLUE.

헤지스여성 26/FW 퍼플 아이코닉.

메트로 한줄뉴스



▲유승민 회장, 실탄 유출 징계 불공정 지적에 "비위 확인 시 조치"

▲NBA 필라델피아, 개막전서 뉴욕 격파…르브론 데뷔전 승리 /사진 뉴시스

▲'아시안게임 동메달' 한국 여자축구, FIFA 랭킹 17위

▲'AG 사브르 2관왕' 오상욱, 전국체전도 단체전 석권으로 2관왕

▲11년 기다렸는데…'WS 진출' 밀워키, 고액 티켓 구매자들과 약속 어겨 논란

▲'계체 실격' 정성숙 유도 감독, 트레이너에게 책임 전가 논란

SAMSUNG

신혼의 시작, 특별한 혜택

삼성 AI 구독 페스티벌

2026. 9. 28 ~ 10. 31

구독에 블루패스를 더하다

삼성 AI 구독

행복한 신혼, 삼성 AI 구독과 함께하세요

구독 혜택 최대 **20%**

구독 시, 할인 · 포인트 등 최대 20% 혜택 증정

- 최대 20% 구독 혜택은 단품 할인 5%, 선납 할인 최대 5%, 다품목 할인(신규 구독 고객) 최대 5% 및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최대 약 5% 합산 기준

* 최대 20% 구독 혜택은 구독 판매처에 따라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총 구독료의 최대 20% 할인 혜택 증정(일부 품목 한정)

구독료 지원 최대 **6개월** 상당

추천 모델 구독 시
최대 6개월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단,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태블릿(일부 모델 대상) 추천 모델 구독 시에는 3개월 구독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증정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추천 모델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다품목 혜택 최대 **600만** 상당

일시불 구매 · 구독 시 품목 수에 따라
최대 600만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최대 22개 품목을 일시불 · 구독 결합으로 구매 시 최대 600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증정

* 구독 또는 일시불로만 구입 가능한 최대 품목 개수와 혜택은 달라질 수 있음
* 다품목 혜택은 행사 매장에 따라 대상 품목 및 최대 증정 포인트 기준이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동일 장소에 동일 품목 10대 이상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대상 품목 : 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컨/공기청정기/정수기)

Our New Life

* 본 행사 및 구독 혜택은 온/오프라인 행사 채널의 대상 모델에 한해 적용되며, 경로별 적용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적용 조건, 지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 일부 AI 기능 없는 모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고객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에 한정됩니다. * 구독 및 일시불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사은품, 포인트 등)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